ECONOMY Chosun

ChosunMedia 조선비즈

www.economychosun.com

2021.05.05
통권 394호

이슈 코로나19 쓰나미 인도, 흔들리는 모디 리더십 p30
조선비즈 미래금융포럼 구글·아마존 기조연설 p44



COVER STORY

메타버스 신대륙

이코노미조선 394호 5,000원



ISSN 2384-2725

VISIT…

LANZAROTE Caliente.COM

무엇을 입을까?
WITHOUT SAE-A?

매년 **세아**가 만드는 **6억장의 옷,**
북중미 모든 사람들을 입히고도 남습니다





세상을 입히다
세아상역

GLOBAL SAE-A

SAE-A TRADING | SAE-A EINS | SAE-A SPINNING | SAE-A stx ENTECH
WIN TEXTILE | IN THE F | S&A | TAILIM PAPER | TAILIM PACKAGING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 모았다 KB Pay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0422-01291-ADP(2021.04.22 기준)

KB 국민카드

CONTENTS



Part 1. 메타버스가 여는 신대륙

10 인류의 신(新)대륙, 메타버스
게임·소셜 활동 넘어 차·항공기 설계에도 응용
메타버스 시대 온다

12 **Infographic**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Part 2. 메타버스에 올라탄 기업들

14 Z 세대 사로잡은 메타버스
‘초통령’된 메타버스, 엔터·명품 업체도 러브콜

16 **Interview** 제나 리 MS IoT & MR 아시아 기술총괄
“록히드마틴, 홀로그램 보며 유인 우주선 조립”

18 **Interview**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메타버스로 소통 강화…일하는 방식 근본적 변화”

19 **Interview** 안주형 미라지소프트 대표
“가상현실 속 한국의 낚시터…미국인도 와서 낚시해요”

20 **Interview**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전국 아파트 95% 이상 메타버스에 담았다”

21 **Interview** 채용욱 룩시드랩스 대표
“메타버스로 노인 치매 예방하고, 재활 치료 도와요”

Part 3. 해외 전문가 제언

22 **Interview** 캐시 해클 퓨처인텔리전스그룹 CEO
“SF 영화 같은 세상 펼쳐질 것…디지털 트윈 나온다”

24 해외 전문가 기고 밥 스톤 영국 버밍엄대 교수
‘제2의 인터넷’ 메타버스 ‘얼리어답터’ 되라



CONTENTS

PHOTO NEWS

26 Global Issue
마스크 벗은 美 바이든…“접종자, 야외서 마스크 벗어라”

ISSUE & PEOPLE

28 LotteOn 출범 1년 ‘롯데온’의 반격
M&A 승부사 신동빈,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나

30 India Covid19 Second Wave
팬데믹 쓰나미 인도, 흔들리는 모디 리더십
방역보다 선거 유세…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세계 절반

32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nterview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임 원장
“뉴스페이스 시대, 미래 기술 연구로 민간과 협력”

BUSINESS

34 Luca831 주택 시장 큰손 부상 젊은 자산가 잡아라
강남대로 중심에서 만나는 최고급 주거공간 ‘루카831’

36 Delivery Chaos ‘택배 대란’ 부른 지하주차장 층고
시공비 상승 탓 29년간 층고 2.3m…‘택배 대란 지속’

37 Ice Cream Store 동네 상가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느는 까닭
동종업종 규약 피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창업 ‘열풍’

38 Korean Liquor 박순욱의 술기행
Interview 주류대상 막걸리 최고상 벗드림양조장 김성욱 대표

40 Start-Up 박순우의 스타트업 산책 ⟨4⟩
세계인의 자기 계발 목표 달성 돕는 ‘챌린저스’

42 Enterprise Briefing 삼성家 세기의 상속세

FINANCE

44 ChosunBiz 2021 미래 금융 포럼
Chosunbiz 2021 Future Financial Forum
라젠 셰스 구글 클라우드 AI 및 산업솔루션 담당 부사장
스캇 멀린스 AWS 글로벌 금융서비스사업 개발 총괄

46 Sports Marketing 봄철 기지개 켜는 금융권 스포츠 마케팅
좋아하는 야구단 이름 딴 통장 만들면 우대금리도

48 Cryptocurrency 코스피보다 커진 국내 가상화폐 시장
韓 가상화폐 투기 열풍…정부 시계는 아직도 3년 전

50 Investment 염여진의 마켓잠망경 ⟨13⟩
공매도 재개를 맞이한 현명한 자세

GLOBAL BRIEFING

52 Biden’s First Address to Congress
취임 100일 바이든 첫 의회 연설
“낙수경제 작동한 적 없어”…‘부자증세’ 실험 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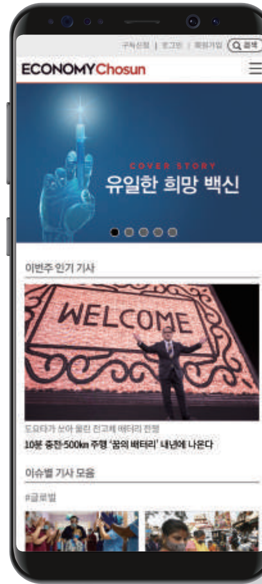
GLOBAL

54 Digital Currency 최용민의 글로벌 경제 톡톡 ⟨4⟩
통화의 국제화와 디지털 화폐전쟁의 그림자

CEO &

56 Health CEO건강학 ⟨156⟩
집콕 생활, 건강 위해 근육을 잡아라

57 China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13⟩
정부 감독 대상이 된 평대경제(平台經濟)



〈이코노미조선〉을 모바일 홈페이지로도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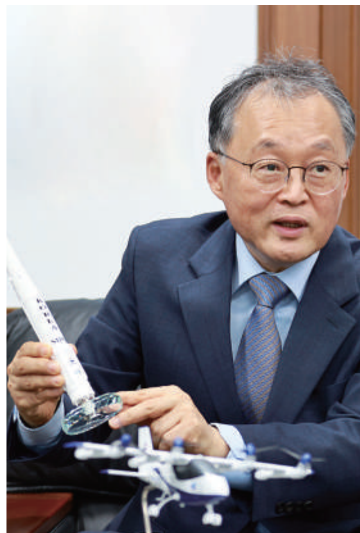
http://economy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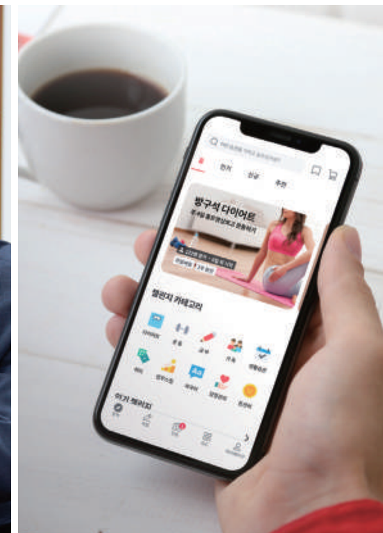
모바일에서 〈이코노미조선〉 100배 즐기기

1 | **회원 혜택 누리기** 정기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정기구독자이시면 회원가입을 하세요. 온라인 유료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 **최신호 자세히 보기** 이번 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일부 유료). 지난 호의 표지와 관련 기사도 보실 수 있습니다.
3 | **이번 주 동영상** 경제 이슈 등에 재미를 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4 | **전자책 서비스** 전자책 1위 리디북스에 입점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보고 싶은 독자들은 이 코너를 방문해 보세요.
5 | **페이스북 카드 뉴스** 매주 2회 경제 주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6 | **웹툰** 아빠와 너, Mr. 워런버핏을 볼 수 있습니다.
7 | **인포그래픽** 커버스토리가 담고 있는 많은 양의 정보를 표와 그래프, 이미지 등을 활용해 보여 드립니다.









CONTENTS

COLUMN

58 **IT** 로직반도체 시장 천하삼분지계
인텔·AMD·엔비디아 로직반도체 3강 체제 공고화

60 **Lawfirm Inside** 로펌 인사이드
세금 미납으로 범죄자 될 수도 있다

62 **Real Estate** 부동산 돋보기
임대료 연체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10년 보장될까

64 **Global** 바이든 부양책, 낭비 우려되는 네 가지 이유

66 **Local**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본 인재 경영의 중요성

CULTURE & ENTERTAINMENT

68 **GOLF** 민학수의 골프 오디세이 〈43〉
Interview KLPGA 지정병원 솔병원 나영무 원장
프로와 아마추어 다치는 부위도 달라
평소 운동하고 라운드 땐 힘 빼라

70 **ENDING NOTE** 박혜진의 엔딩노트 〈35〉
글쓰기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72 **WINE** 원스 어폰 어 와인 〈15〉 로제 와인
봄을 한가득 담은 와인, 로제…꽃향기와 과일 향 물씬

74 **FABLE** 홍광훈의 산인만필(散人漫筆) 〈1〉
LH 사태로 돌아보는 세태…지도층 '청렴'이 해법

76 **BOOKS** '경영의 신'이 말하는 일의 진짜 가치

78 **CARTOON** 아빠와 너 〈69〉

EDITOR'S LETTER

80 방역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가 리더십







ECONOMYChosun

승진·영전 때 〈이코노미조선〉을 선물하세요

소중한 사람의 승진·영전·취업·입학 때
1년 구독권을 선물하면 매주 배달될 때
증정자의 이름이 겉봉에 인쇄되어 받는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독 안내 정가 5000원
(월 1만8000원, 1년 정기구독료 20만원)

구독 문의 02. 724. 6040

〈이코노미조선〉은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고위 임원, 경제경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행인 방준오

편집인 김영수

에디터 오광진

기자 김문관 안상희 박용선
이진혁 전준범 안소영 이소연

인턴기자 정현진

특파원
김남희 조선비즈 베이징 특파원

광고 본부장 김규승
대리 박경배

교열 장희선 정혜영

경영지원 이예은

사진 채승우 김흥구

디자인 씨에디터
아트 디렉터 신승희
수석 디자이너 강민정
디자이너 서상희 박미례 박고은

인쇄 (주)조광프린팅

등록일 2015. 12. 29
등록번호 서울, 다 11065
편집 02-724-6031~5
광고 02-724-6036~7
판매 02-724-6795~98
독자서비스 02-724-6040

발행처 조선비즈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5층

〈이코노미조선〉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책에 실린 내용들은
〈이코노미조선〉의 사전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금융그룹

Green + Digital

뉴딜 투자, 글로벌하게 하나로~ 담자!



K-뉴딜을 넘어 '글로벌 뉴딜' 투자로!

하나뉴딜글로벌테크랩 V4

*주요 투자 테마

그린 뉴딜 + 디지털 전환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등 +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테마

투자포인트 「그린 &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해외주식에 집중 투자**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1.0%, 후취 연1.5% • 성과형 : 후취 연1.5%+성과보수(고객과 별도 합의)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본 랩어카운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랩어카운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랩어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중개회사 및 해외 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비용은 해당 거래소 및 중개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290호(2021.01.21~2022.01.20), cc브랜드210121-0151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HANSAE

fashion worldwide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의 패션문화를 선도합니다.



한세는 국내 4개 계열사, 해외 20개 법인을 통해
2020년 기준 패션 부문 매출 2조1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한세실업, 한세 VN, 한세 TN, 한세 TG, 한세 호찌민, 한세 하노이, 한세 다낭 오피스, 한세 타인호안 오피스, 한세 껀터 오피스, 한세 인도네시아 우타마, 보민 페르타마 아바디, 한세 인도네시아 숙세스, 한세 스마랑 오피스, 한세 인터내셔널, 한세 피눌라, 한세 글로벌, 한세 아이티, 미얀마 에야와디, 한세 미얀마, 어패럴 매뉴팩처링 파트너스 마스크 공장, 한세 뉴욕 디자인 센터, 한세 벤톤빌 오피스, 한세 유럽 디자인 센터, 한세드림 재팬, 칼라앤터치 C&T VINA, C&T G-TECH 한세엠케이 만쿤(상하이)상무유한공사, 한세드림 커아이슈푸시(상하이)유한공사



TV CHOSUN

TV CHOSUN 뉴스 9

“여러분의 앵커
신동욱이 찾아갑니다”

월-금 9:00PM I 신동욱 윤우리

www.kolonmall.com

BRENTWOOD

Suit Change

*브렌우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에서 전개하는 비즈니스 라이프 웨어 브랜드 입니다.

COVER STORY

메타버스 신대륙

Part 1. 메타버스가 여는 신대륙
인류의 신(新)대륙, 메타버스
Infographic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Part 2. 메타버스에 올라탄 기업들
Z 세대 사로잡은 메타버스
Interview 제나 리 MS IoT & MR 아시아 기술총괄
Interview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Interview 안주형 미라지소프트 대표
Interview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Interview 채용욱 룩시드랩스 대표

Part 3. 해외 전문가 제언
Interview 캐시 해클 퓨처인텔리전스그룹 CEO
전문가 기고 밥 스톤 영국 버밍엄대 교수



인류의 신(新)대륙, 메타버스

게임·소셜 활동 넘어 차·항공기 설계에도 응용 메타버스 시대 온다



현대차와 기아는 디자인, 설계 등 차량 개발 주요 과정에 VR·AR·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다. 현대차

안소영 기자

4월 23일 서울 코엑스 월드IT쇼 SK텔레콤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 부스. 월드IT쇼 폐막을 앞둔 이날 오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관에는 각각 열댓 명이 줄을 서는 광경이 이어졌다. VR 기기를 쓰고 타는 놀이기구인 메타버스 시네마를 탑승하려는 대기자는 120명에 달했다.

메타버스를 업무에 활용하려는 이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직원 10명과 함께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블미'를 찾은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 김현숙(56) 융합신산업팀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부산과학관에 초대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의 회의에도 아바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비대면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대용량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이 확충되면서, 메타버스 붐이 일고 있다.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지난 3월 메타버스 기업 중 처음으로 뉴욕증시에 직상장했고, 3D 아바타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인 네이버 제페토는 가입자 2억 명을 넘겼다. 가상세계에서 입학식, 졸업식,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하거나 아이돌 뮤직비디오 공개, 팬사인회를 진행하는 일도 흔하다.

메타버스란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동된 가상의 세계라는 뜻이다. 가상세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구현된 개인이 서로 소통하고 돈을 벌고 소비하고, 놀이·업무를 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양방향으로 연동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메타버스 어원을 찾자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작가 닐 스테픈슨은 1992년작 SF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주인공이 고글과 이어폰을 활용해 3D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등장한 '싸이월드'의 미니미, 3D 아바타로 활동하는 '세컨드라이프', 현실세계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포켓몬이 등장하는 '포켓몬고',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등도 메타버스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 메타버스 열풍 뒤에는 MZ 세대(밀레니얼+Z 세대·1981~2004년생)와 코로나19가 있다.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메타버스를 교류의 장으로 택하기 시작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1월 25일 한국정보통신협회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국가 간 이동과 여행 중단, 사교가 제한된 일상이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속도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AR·VR·확장현실(XR)·5G 등 신기술은 메타버스 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컨설팅 기업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AR·VR 시장은 2019년 464억달러(약 52조원)에서 2025년 4764억달러(약 540조원),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700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안소영 기자 아바타(왼쪽에서 두 번째)가 제페토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다. 네이버제트



미래의 땅에서 기회 찾는 기업

메타버스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도 늘고 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1위 업체인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아마존은 메타버스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이다. 현실세계로 보면 도로·전기·수도·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은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MS의 홀로렌즈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AR과 VR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오큘러스 퀘스트2를 공개했다. 친구와 게임하거나 TV를 함께 시청하는 것을 넘어 가상세계에 구축된 사무실 '인피니트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부터 오큘러스 퀘스트2를 국내 판매하고 있는 SK텔레콤은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프 VR' 플랫폼을 이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MZ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메타버스는 게임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구성 요소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샌드박스 게임'이 대표적이다. 사용자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여러 블록을 활용해 건축물·공간·물건 등을 만들 수 있고, 로블록스에서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즐길 수 있다. 제페토에서는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든 뒤 다양한 가상 장소에서 다른 사용자를 만나 소통할 수 있다.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을 차지하거나 사고 파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인그레스, 어스2,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크립토복셀, 솜니움 스페이스 등 다양하다. 가격이 오르고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어 투자 자산으로도 기능한다.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등장이 이를 보여준다.

메타버스 주요 용어

용어	설명
가상현실 (VR·Virtual Reality)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증강현실 (AR·Augmented Reality)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현실공간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
혼합현실 (MR·Mixed Reality)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 정보를 결합해 두 세계가 결합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
확장현실 (XR·eXtended Reality)	VR, AR, MR을 포함해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형태의 현실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

자료 : '이코노미조선' 정리

메타버스는 새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고 있다. 도면 하나만 있으면 3D 집을 만들고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VR로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는 '큐픽스'와 사용자의 치매를 진단해주는 '룩시드랩스', 재활 훈련 프로그램 '테크빌리지' 등이 등장했다.

국가 핵심 산업에서도 메타버스와 XR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세계에서 북미, 인도, 유럽 직원들과 만나 신차 품평회를 한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AR을 활용해 항공기 정보, 매뉴얼을 빠르게 확인하며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미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 전문 기업 엔디비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4월 13일 GPU기술콘퍼런스에서 AI가 통합된 메타버스 솔루션 '옴니버스'를 소개하며 "가상세계를 공유하도록 고안했다"며 "'스노우 크래쉬'의 메타버스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BMW가 옴니버스를 통해 팀을 연결하고 가상으로 미래 공장을 설계·계획 운영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미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화학·자동차·조선해양 등 국내 3개 제조업 현장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사람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만들고, 전 공정에 XR을 연동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융합 플랫폼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공간이 놀이터에서 산업 현장까지 끌어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책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강원대 교수는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다"며 "현실세계처럼 손괴, 절도, 횡령, 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처벌은 계정 사용 정지 등에 그쳐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운택 KAIST 증강현실연구센터 센터장은 "VR·AR을 디지털 트윈과 연동하여 현실 공간과 연결할 경우 폭발력이 상당히 크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긍정·부정적인 면 모두 존재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 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시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류의 신대륙 메타버스, 이곳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코노미조선'과 함께 메타버스 세계로 떠나보자.

Infographic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구성 이소연 기자, 정현진 인턴기자
그래픽 박고은 디자이너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



자료 : 미국 가속연구재단(ASF)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설계자	메타버스의 목적·공간·체계·규칙 등을 기획해 제공하는 주체
시티즌	메타버스에 가입·등록해 활동하는 개별 주체
활동	메타버스 시티즌이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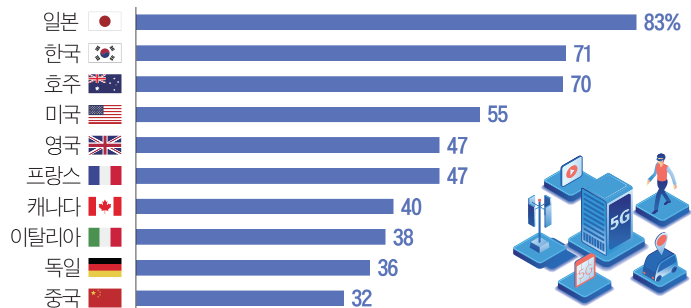
자료 : 텐투플레이

분야별 주요 기업

게임·엔터	플랫폼·기반산업
로블록스, 에픽게임스(포트나이트), 닌텐도, 모장(마인크래프트), 나이언틱(포켓몬고), 텐센트, 네이버,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구글, 아마존, MS, 페이스북, 애플,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차이나텔레콤

자료 : '이코노미조선' 정리

메타버스 인프라 5G 보급 전망



※ 2025년 추정치, 1인당 5G 보급 비율 기준

자료 : 액센추어

메타버스 타임라인



1992년 6월
닐 스테픈슨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메타버스' 용어와 개념 첫 등장

2003년 6월
린든랩, 인터넷 기반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게임 '세컨드라이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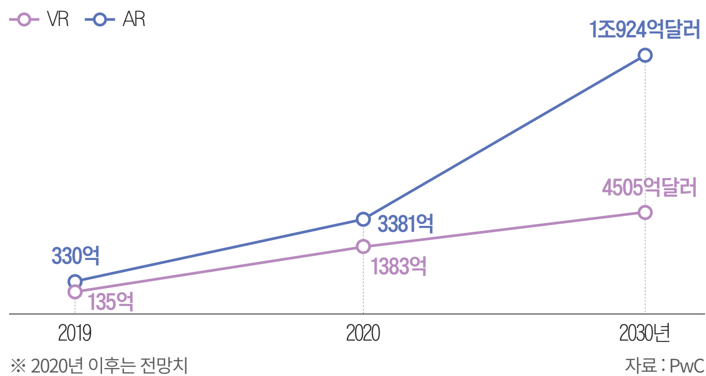
2004년 8월
'유니티' 출시로 3D 웹미디어 제작 확산

2014년 3월
페이스북, VR 테크 기업 오큘러스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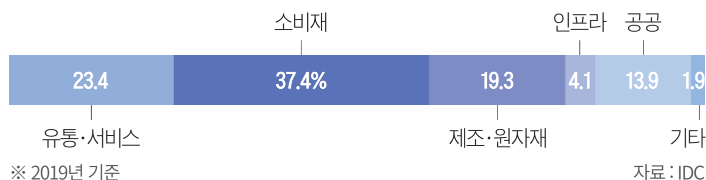
2015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 HMD AR 기기 '홀로렌즈' 출시

2016년 7월
모바일 AR 게임 '포켓몬고' 열풍

급성장하는 VR, AR 시장



VR, AR 적용 분야 현황



혼합현실 구성 기술



메타버스 말 말 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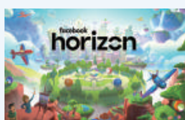
"20년 전 메타버스는 공상 과학 소설이었고, 10년 전에는 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현실이 됐다."

산드라 로페즈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미래위원회 공동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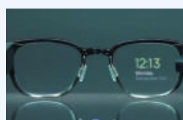
"VR과 AR은 이미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게임을 넘어 사회·경제에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CEO

"메타버스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브랜드들은 단순히 홍보가 아닌, 실제 소비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메타버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019년 9월
페이스북, 소셜 VR 플랫폼 '호라이즌'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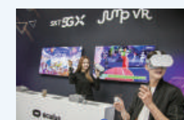
2020년 6월
구글, AR 글래스 개발 기업 노스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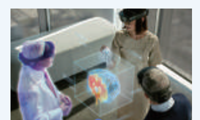
2020년 8월
LG유플러스, 중국 엔리얼과 함께 세계 첫 5G AR 글래스 출시



2020년 10월
VR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2' 출시 후 2달 만에 100만 대 판매 신기록 달성



2021년 2월
SKT, '오큘러스 퀘스트 2' 한국 최초 공식 판매 시작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협업 플랫폼 'MS 메시' 공개

Z 세대 사로잡은 메타버스

‘초통령’ 된 메타버스, 엔터·명품 업체도 러브콜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안소영 기자

‘초통령’ ‘게임판 유튜브’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의 대표 주자’

2004년 설립된 미국의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Roblox)’를 부르는 말은 이렇게나 다양하다. 로블록스는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듯 사용자가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레고 같은 아바타에 단순한 배경, 1차원적인 세계관이지만 Z 세대(1996~2010년 출생자)에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9~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로블록스를 사용한다. 미국 10대의 하루 평균 로블록스 사용 시간은 156분으로, 틱톡(58분), 유튜브(35분)보다 많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랙핑크의 아바타, 동물의 숲에서 선거 유세하는 조 바이든, 포트나이트에서 공연하는 트래비스 스콧. 네이버제트·닌텐도·에픽게임스

초통령의 위용일까. 로블록스는 3월 1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 54% 오르며 기업 가치가 급등했고, 단숨에 스타크래프트, 피파21, GTA5와 함께 ‘미국 게임 빅4’로 올라섰다. 월가 스타 펀드 매니저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로블록스를 펀드에 담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먼틀리 풀은 로블록스를 ‘10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식’으로 꼽았다.

로블록스뿐만이 아니다. 게임에 문화생활을 접목한 ‘포트나이트(Fortnite)’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미국 10~17세 청소년의 40%가 매주 한 번 이상 포트나이트에 접속하고, 전체 여가의 25%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월 “우리의 최대 라이벌은 디즈니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의 기업 가치는 2018년 150억달러(약 16조원)에서 올해 4월 현재 287억달러(약 31조원)로 91% 상승했다. 중국 최대 게임 업체 텐센트가 에픽게임스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제페토(Zepeto)’도 설립 3년 만에 누적 고객 2억 명을 넘어섰다. 제페토는 가상공간에 3D 아바타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나이와 성별, 인종,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디든 갈 수 있고 이윤 창출도 가능하다. 해외 이용자가 90%에 달하고, K팝 팬이 많아 국내 주요 연예 기획사의 러브콜도 이어진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는 네이버제트에 70억원을 투자했고, YG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는 각각 5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Z 세대와 투자자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용자가 자

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용자는 메타버스에서 원하는 게임이나 장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공연, 영화, 쇼핑 등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이용자에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답답한 일상을 해소할 창구가, 기업엔 또 다른 마케팅 플랫폼이 펼쳐진 셈이다.

엔터테인먼트사와 패션 기업은 이미 메타버스의 열풍에 올라탔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열어 1230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이후 음원 이용률이 25% 상승했다. BTS도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공개했고, 블랙핑크는 제페토에서 가상 팬사인회를 열어 4600만 명의 팬을 만났다. 구찌는 제페토에서 의상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 60종의 아이템을 출시했고, 마크제이콥스와 발렌티노, 안나수이는 닌텐도 가상현실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신상품을 선보였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은 Z 세대와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020년 5월 5일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들을 초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당시 MZ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물의 숲에 'Biden HQ'라는 섬을 만들어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다.

메타버스 관심 갖는 국내 게임 업체

메타버스 인기가 날로 치솟자 국내 게임사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넥슨은 게임 제작 플랫폼 '엠오디(MOD)'와 신개념 놀이 플랫폼 '페이스플레이'를 제작할 IT 인재를 모집 중이다. 두 플랫폼은 '넥슨표 메타버스'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1월 K팝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유니버스'를 출시했다. 좋아하는 스타와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다.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을 돌파했다. 컴투스는 영화 '승리호'를 제작한 VFX(시각특수효과) 전문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에 지분을 투자했다. 글로벌 게임 IP를 영화, 드라마, 공연 등으로 확대하거나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멀티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와이제이엠게임즈, 프렌즈게임즈 등도 메타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Plus Point

Interview 제페토 크리에이터 렌지
"취미가 직업 됐어요"



렌지가 만든 3D 아바타 의상. 렌지

제페토 크리에이터 렌지. 렌지

네이버 제페토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렌지(lenge)씨는 지난 3월 1500만원을 벌었다. 가상세계 속 아바타의 의상과 신발, 헤어스타일 등 아이템을 팔아 얻은 수익이다. 최근 1년간 누적 아이템 판매량은 130만 개가 넘고, 월 수익은 5배가량 뛰었다. "내 아바타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히고 싶어 시작한 취미가 직업이 됐다"는 그를 '이코노미조선'이 화상으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옷을 사는 사용자의 심리는 뭘까.

"대리만족이다. 현실에서는 명품 옷이 너무 비싸고, 다가가기 힘들지 않나. 가상세계에서는 200만원짜리 구찌 옷을 몇천원에 살 수 있다. 저렴한 브랜드 같은 경우 현실에서도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바타를 꾸미는 게 뿌듯하다."

2020년 4월부터 아이템을 판매했다. 유행 트렌드가 있나.

"초반에는 포도를 형상화한 옷 등 웃기고 실생활에서 볼 수 없는 옷이 인기였다면, 이제는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옷을 좋아한다. 요즘에 오버핏이 유행이라고 하면 내 아바타에도 오버핏 옷을 입히고, 날씨가 더워졌다 싶으면 반팔, 민소매 티셔츠를 입힌다. 아바타에 현실의 나를 반영하는 추세다."

메타버스로 새롭게 생긴 직업은 뭔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건축가나 아바타를 이용해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PD 등이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하는 사업은 초기 자본이 들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다. 아이템을 만든 즉시 판매할 수도 있고, 수량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메타버스가 한때의 유행일까.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10대는 모바일 세상으로 들어왔다. 바깥에서 고무줄, 옥상 탈출, 도둑 잡기 놀이를 하기보다 메타버스 내에서 숨바꼭질을 한다거나, 학교 상황극, 가족 상황극을 하고 노는 경우가 많다. 가상세계로 글로벌 커뮤니티 공간이 확대되고, 더욱 활발히 운영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다. 문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빠르게 가상세계로 유입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활동도 가능하다. 트렌드도 바로 바로 반영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처럼 제2의 플랫폼으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Interview 제나 리 MS IoT & MR 아시아 기술총괄

“록히드마틴, 홀로그램 보며 유인우주선 조립”

이소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홀로렌즈2로 만든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 속에서, 세계 1위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은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조립하고 있고, 석유업체 셰브런의 재택근무 직원들은 석유 개발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설계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홀로렌즈2만 착용하면 매뉴얼, 도면부터 설계 이미지, 각종 수치까지도 허공에 뜬 홀로그램(hologram·3차원 입체 영상)을 만지면서 돌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과도 소통하면서 협업할 수 있다. 반복 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MS가 만든 메타버스상에서 약 90% 절감됐다.”

홀로렌즈2로 B2B MR 선점
반복 수작업 시간 90% 절감
경쟁사와 협력 ‘판’ 키워 윈윈

‘이코노미조선’과 4월 27일 화상으로 만난 제나 리(Jenna Lee) MS IoT & MR 아시아 기술총괄은 메타버스 관련 B2B 시장 선점 전략을 밝혔다. 올 3월 삼성증권이 낸 보고서는 MS를 ‘메타버스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홀로렌즈와 자체 클라우드인 애저(Azure)를 기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나 리 기술총괄을 통해 기업의 ‘언택트 협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메타버스 시장 개척에 대한 MS 계획을 들었다.



제나 리 MS IoT & MR 아시아 기술총괄
MIT 슬로안 경영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

B2C가 아닌 B2B 메타버스 시장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기 비용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도입하는 기업 혹은 사람 입장에선 디바이스 가격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투자 가치는 B2C 소비자 시장보단 B2B 기업 시장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2C의 경우, 콘텐츠의 질이나 소비자의 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일반 소비자를 기술과 비용상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미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 등 많은 경쟁자가 B2C 시장에 있지만, B2B 시장은 MS가 선점하고 있어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기업에서 산업 현장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원격 협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어떤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협업하나.

“제조, 항공, 교육, 에너지, 방산, 유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MS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협업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벤틀리 시스템스, 석유업체 셰브런 등 모두 MS 기술을 활용해 언택트로 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나.

“MS가 구현할 메타버스 속에서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를 착용하면 원격으로 협업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을 할 수 있다. 멀리 있는 위험한 현장까지 직원을 보내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 두 직원이 만나지 않아도, 현실공간에 컴퓨터로 구현한 가상현실(VR)을 입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예컨대 재택근무를 하는 전문가는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직원을 통해 그가 보고 있는 상황을 컴퓨터 화면으로 공유받고, 관련 데이터와 배관 및 계측 다이어그램 등을 홀로그램으로 바로 현장에 보낼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MS가 2019년 출시한 기업용 혼합현실(MR) 기기 홀로렌즈2다.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홀로그래픽 컴퓨터인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PC 연결 없이 혼합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현실과 아예 별개로 새로운 공간을 보여주는 가상현실이나 현실에 단순한 가상 정보만 얹어주는 증강현실(AR)을 넘어,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간단한 손동작으로 가상의 아이콘 등을 클릭하고 옮기거나 확대·축소할 수 있고, 홀로그램으로 처리된 작업 내역을 공유하며 원격 지원받을 수도 있다. MS 팀스(Teams) 앱을 통해 홀로렌즈2 속 허공에 띄워진 스크린으로 다른 직원과 통화하며 소통할 수도 있다.”

MS 메타버스의 특징은.

“VR, AR이 아닌 MR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 다른 주요 테크 기업과의 차별점이다. 예컨대 VR로는 아예 현실에 없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게임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형식이 많은데, MS는 MR을 통해 가상현실을 적절히 빌려 현실 기업의 일과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태동기인 현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도 많이 한다. 메타버스 시장에선 지금 완벽한 경쟁자가 없다.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파트너가 된다. 결국 모두가 십시일반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에겐 어찌 보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 오큘러스, HP, HTC 등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 제조업체와 협업해 MS의 MR 디지털 협업 플랫폼인 ‘메시(Mesh)’를 내놓았다. 메시는 MR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데, MS 자사 제품이 아닌 오큘러스 등 다른 회사 메타버스 제품으로도 메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서비스든지 간에 시장이 커져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세계 시장 상황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MR 등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S의 MR 관련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아시아 성장률이 가장 높다. 아시아에는 에너지, 제조업뿐 아니라 오일, 가스 등 자원까지 MR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이 주력인 국가가 많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체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이 있어, 중국 회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선 스마트빌딩, 에너지, 자동차 등 모멘텀이 좋고, 글로벌 유통 기업도 많아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특히 보안에 더 신경 쓸 예정이다. 보안 장치 수준을 더 높여 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Interview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메타버스로 소통 강화…일하는 방식 근본적 변화”

안소영 기자

당신의 방이 컴퓨터 모니터고, 당신의 손은 마우스다. 허공에 있는 가상 키보드를 누르면 가상 모니터에 글자가 입력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료와 회의를 잡자마자 나란히 회의실에 앉아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몸은 집에 있지만 사무실에 출근해 동료에게 말을 걸 수도 있다.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모두 현실이다.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가 게임, 소통을 넘어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앞장서 만드는 기술 기업 중 하나다. 2014년 가상현실(VR) 기기 제작사 오큘러스를 20억달러(약 2조2600억원)에 사들인 이후, 비트게임스, 스케이프 테크놀로지, 산자루 게임스, 레디 앳 던 등을 잇따라 인수했다. 현재 VR·증강현실(AR) 담당 직원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코노미조선’이 4월 27일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관심 갖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라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연결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람들을 잇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세대 기술을 통해 주변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나.

“이미 VR은 제조·설계 담당 직원들의 작업 속도를 높이고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VR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페이스북은 2020년 열린 페이스북 커넥트에서 가상사무실 ‘인피니트 오피스’를 처음 소개한 바 있다. 이는 VR 환경에서도 업무가 생산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한다. 페이스북의 VR 기기 오큘러스에도 업무 애플리케이션(앱) ‘스페이셜’ ‘이머스드’ ‘그래비티 스케치’가 있다. 직원들끼리 멀리 있더라도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팀의 생산성을 높인다.”

국내 메타버스 시장의 특징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특히 미라지소프트 등이 콘텐츠 영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이 만드는 미래 메타버스는.

“페이스북은 핵심 기술, 기초 과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세상과 상호 작용하는 안경을 통해 눈앞에 통화 중인 친구의 홀로그램(hologram·3차원 입체 영상)을 띄우거나,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도 스마트폰 없이 방향을 확인하거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날이 올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미리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한 기술의 구현’이 최우선 순위다.”



페이스북의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2’에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페이셜(Spatial)’.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스페이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전 라인 최고사업책임자(CBO),
전 SK플래닛 최고제품책임자(CPO),
전 구글 제품 담당 매니저



페이스북코리아

Interview 안주형 미라지소프트 대표

“가상현실 속 한국의 낚시터…미국인도 와서 낚시해요”

이소연 기자

“휠체어를 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노인도 가상현실(VR) 고글만 쓰면,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상어를 낚을 수 있다. 고개를 들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터치 컨트롤러를 낚싯대 다루듯이 휙휙 던지면 입질이 느껴지고, 힘껏 손목을 움직이면 고기가 스르륵 올라온다. 우리가 만든 메타버스 안에서는 누구나 실제 공간과 똑같이 구현된 낚시터의 낚시꾼이 된다.”

국내 VR 게임 스타트업 미라지소프트 안주형 대표는 4월 19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매출의 99%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오큘러스 엔지니어 출신의 안 대표가 2016년 설립한 미라지소프트는 낚시 게임 ‘리얼 VR 피싱(Real VR Fishing)’을 페이스북의 VR 플랫폼인 오큘러스 퀘스트에 한국 게임으로는 처음 2019년 9월 입점시켰다. 2021년 2월 기준 300만달러(약 33억원)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안동호, 울릉도 앞바다 등 국내 낚시 명소와 한국 토종 어종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다고 평가받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소연 기자

낚시를 택한 이유는.

“현재 VR 기술을 고려했을 때, 지연에 따른 멀미가 큰 장벽이다. 따라서 최대한 사용자가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도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낚시를 골랐다. 또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그에 맞춰 많은 장소를 구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낚시는 한정적인 장소에서 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흘러가는 물, 새가 날아가는 하늘 등 동적인 환경도 구현해 재미를 전달하기도 했다.”

어떤 기술을 활용했나.

“컴퓨터 그래픽은 사실감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360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3D 형태로 스캔해 볼륨감을 줬다. 순수 컴퓨터 그래픽은 너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 실제 자연 공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다. 반면 우리 게임은 실사 사진을 바탕으로 하므로 어색하지 않다.”

안주형 미라지소프트 대표
영남대 건축학과,
전 페이스북 오큘러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미라지소프트는 세계 어디서나 한국 낚시터에서 낚시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했다. 미라지소프트

매출의 99%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아직 한국 VR 시장이 작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해외를 타깃하고 게임을 만들어 한국어 옵션도 없다. 처음엔 한국에 있는 공간을 가상현실에 구현했을 때 해외 이용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으나, 낚시라는 경험이 보편적일 뿐 아니라 자연환경은 어디든 크게 이질적이지 않아 문제 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목표는.

“미국을 배경으로 한 낚시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에 가서 그곳의 유명 낚시터를 360도 사진으로 찍어왔고, 현재 작업 중이다.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많은 낚시터를 가상공간에 구축할 예정이다.”

Interview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전국 아파트 95% 이상 메타버스에 담았다”

이소연 기자

“지금 어반베이스에 접속해 집 주소를 치면 3초 만에 살고 있는 집이 3D 형태로 구현되어 나타날 것이다. 전국 아파트의 95% 이상이 우리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 내에 구축돼 있다. 가상 공간의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배치하고, 키우는 강아지도 3D 형태로 추가하면서 마음껏 가상의 집을 꾸밀 수 있다. 어반베이스 입점 가구점은 고객과 계속 만날 수 있다.”

‘이코노미조선’과 4월 23일 서울 서초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3D공간 데이터 플랫폼을 이렇게 소개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접목해 2D의 건축도면을 3D로 구현하고 그 위에 다양한 인테리어를 가상으로 덧입힐 수 있게 한다. 201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일룸, 롯데하이마트, 에이스침대 등 다양한 브랜드와 제휴를 맺어 가상현실에서 사용자가 7000여 개 제품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반베이스 메타버스에 구현된 아파트 내부. 어반베이스


이소연 기자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경희대 건축공학과, 전 서울건축 건축가

어반베이스의 주요 기술은 무엇인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오토 스케치(Auto Sketch) 기술 2D 도면 이미지를 3D로 자동 변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디자이너, 건축가, 인테리어 업체 등이 가상에서 공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가상 공간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인 3D 홈디자인을 통해선 내가 현재 사는 아파트를 가상에서 확인하고, 가구, 가전, 생활소품, 벽지, 창호 등을 자유자재로 인테리어할 수 있다. B2C뿐 아니라 발주·견적 기능을 더해 B2B용도 출시했다. LG전자 등 많은 기업이 공간 컨설팅 툴로도 이를 활용한다.”

가상으로 공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건축은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온디맨드(주문에 기반한 맞춤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오기 전에 미리 체험할 수가 없다. 설계 단계에서 수많은 미팅을 통해 도면으로 건축자가 공간을 설명해도, 비전공자 입장에선 도면만으로는 머릿속에 공간을 떠올리기 어렵다.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 설계 단계에서 놓치는 부분도 많아 준공 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시공사와 설계사의 소통이 잘못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상에서 공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나.

“소비자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가구 등 제품이 자신의 공간에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에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종합적인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예컨대 인테리어가 끝난 이후에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머물 수 있게 고양이 아바타가 실제 반려동물을 키울 때처럼 움직인다거나, 로블록스나 제페토처럼 아바타가 등장해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Interview 채용욱 룩시드랩스 대표

“메타버스로 노인 치매 예방하고, 재활 치료 도와요”

이소연 기자

“룩시드랩스가 만든 메타버스 속에서 노인은 바닷가의 새들 중 까마귀를 골라 총을 쏘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여러 상자 중 빛났던 상자의 순서를 기억해 다시 순서대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지 기능 게임과 인지 능력 테스트를 통해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전두엽을 자극하면서 치매를 예방, 선제 진단할 수 있다.”

가상공간을 활용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회사가 있다. 2015년 설립된 룩시드랩스는 가상현실(VR) 기기 이용자의 시선과 뇌파 등 생체신호를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VR 헤드셋을 이용해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노년층의 치매 위험 정도를 파악해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재까지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통해 약 85억원이 넘는 누적 투자액을 유치했다. ‘이코노미조선’은 4월 27일 채용욱 룩시드랩스 대표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룩시드랩스가 구축한 메타버스에서 노인은 다양한 인지 게임을 하며 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룩시드랩스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나.

“메타버스 VR 공간에서 노인이 모여 클리닉처럼 그림 그리고, 우울증이나 중독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병원이나 클리닉에 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집에서도 환자가 자체적으로 가상현실에서 홈케어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컨트롤러를 활용해 팔다리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간단한 재활 치료 등 운동을 하고, 치매 예방 게임을 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메타버스에서 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모바일이나 PC에서 관련 훈련이나 시험을 진행할 때보다 VR을 통해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몰입감이 높아 효과적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인지 평가와 훈련 게임을 지원한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현실의 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다.”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나.

“메타버스 내 주의력, 기억력, 지각 능력을 훈련하고 측정하는 다양한 3D VR 콘텐츠가 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사람의 뇌파 관련 데이터를 모았고, 병원에서 임상도 진행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뇌파의 변화, 동공 크기 변화, 시선 처리의 느려짐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확보해, 정상 수치 대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판별해 치매가 의심되니 병원에 가보라고 안내할 수 있게 됐다.”

협력 파트너가 있나.

“지난해 SK텔레콤과 부산대병원이 5G 기반 VR 노인 돌봄 시범 서비스 제공에 나서, 치매안심센터와 병원에 치매 조기 발견 관련 헬스케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채용욱 룩시드랩스 대표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 석사,
전 퓨처플레이 심사역, 전 와이브레인 대표이사



룩시드랩스

Interview 캐시 해클 퓨처인텔리전스그룹 CEO

“SF 영화 같은 세상 펼쳐질 것…디지털 트윈 나온다”

안소영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18년 선보인 SF(공상과학)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2045년 혼합현실(MR)이 일상에 스며든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상현실(VR) 기기를 쓰기만 하면 언제든 원하는 캐릭터로 변신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와 우정을 쌓거나 연애를 하고 가상현실에서 구매한 아이템을 현실에서 배송받기도 한다.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펼쳐졌던 혼합현실은 과연 먼 미래일까. 기술 미래학자 캐시 해클은 ‘이코노미조선’과의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SF 영화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사람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만날 준비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캐시 해클은 확장현실(XR)·공간컴퓨팅 전문가로 링크드인이 뽑은 ‘2020 톱 테크놀로지 보이스’, 빅싱크가 꼽은 ‘2020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10인의 여성’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현재 퓨처인텔리전스그룹 최고경영자(CEO), 매직 리프의 기업 전략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타버스 개념이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됐다.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두기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미 줌으로 하는 가족회의, 동물의 숲에서 진행하는 결혼식, 마인크래프트에서 열리는 졸업식 같은 사례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를 찾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과거와 달리 현실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의 발전은 메타버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5G는 빠른 데이터 속도, 짧은 전달 시간, 대용량, 초연결 등의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으로 보나.

“아크 인베스트에 따르면,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 1800억달러(약 203조4000억원)지만, 2025년까지 3900억달러(약 440조7000억원)로 매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게임, 패션, 예술, 음악, 기술 기업이 가상세계에서 수익을 낼 방법을 찾고 있다. 가상세계 부동산을 매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업랜드’를 보면 쉽다. 우리는 업랜드에서 누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입찰에 나설 수 있다. 단순한 장난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업랜드가 인기를 끌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가상세계 부동산 소유자는 돈을 추가로 벌고, 현금화할 수도 있다. 업랜드는 현재 점과 면으로 구성된 2D 상태이지만, 3D 형태로 구축하려고 한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기반 예술품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자산 가격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상경제 마케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메타버스가

캐시 해클 퓨처인텔리전스그룹 CEO
미래학자, 링크드인이 뽑은 ‘2020 톱 테크놀로지 보이스’, 빅싱크가 꼽은 ‘2020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10인의 여성’


퓨처인텔리전스그룹


포트나이트에서 웬디스 캐릭터가 경쟁 버거 브랜드의 냉동고를 깨부수는 모습. 웬디스



버버리가 선보인 게임 'B 바운스'. 버버리


동물의 숲에서 결혼 사진을 찍고 있는 리사와 리포 부부. 닌텐도

인기를 끌면 메타버스 게임 스트리머가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가수만큼 광고·마케팅에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은 메타버스에서 시장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메타버스 문화를 익혀야 한다. 메타버스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돈을 들이지 않고 광고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메타버스 마케팅을 잘 활용한 기업은.

"미국 햄버거 브랜드 '웬디스(Wendy's)'가 있다. 웬디스는 포트나이트에서 햄버거 팀과 피자 팀이 혈투를 벌일 당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피자 팀에 섰다. 웬디스는 적은 죽이지 않고 다른 버거 브랜드의 냉동고만 계속 깨부숴다. '다른 버거처럼 냉동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웬디스의 홍보 전략이었다. 이 게임 영상은 글로벌 방송 플랫폼 '트위치'로 생방송됐고 화제를 모았다. 웬디스의 트위치 팔로어는 순식간에 0명에서 7400명으로 늘었고 4만3500개의 댓글이 달렸다. 2019 칸 국제광고제에서 '소셜 앤드 인플루언서' 분야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어떤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나.

"패션이다. 메타버스가 패션의 '수도'이자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제2의 코코 샤넬은 로블록스에서 아바타를 꾸미고 있는 10대 소녀일 것이라 생각한다. 패션업체는 이제 기술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의 소비자는 이제 메타버스에 있다. 패션 브랜드가 디지털 정체성을 익히고 트렌드를 따르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명품업체 버버리는 자체 게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젊은층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훌륭한 전략이다. 가상세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브랜드들은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전문 크리에이터와 손잡고 캠페인을 전개하면 좋다. 이케아처럼 가상세계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꾸준히 브랜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마케팅 외 활용 방법은.

"우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직원들이 조직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다. 요즘 직원 경험(EX·Employee Experience)은 고객 경험(CX·Customer Experience)만큼이나 중요하다. 포브스 인사이트·세일즈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경험과 고객 경험 만족도가 높은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보인다.

가상현실은 직원들의 숙련도를 높이거나 교육을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가상현실을 활용하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요소가 많더라도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다. 종합 물류 기업 DHL은 이머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신규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물류창고 업무에 활용한다. 작업자들은 물류창고 내 제품 위치, 수량, 하역 장소 등 정보를 받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새롭게 생겨날 직업이 있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을 꼽자면, 홀로그램(hologram·3차원 입체 영상) 레거시 변호사가 있다. 홀로그램은 실물과 똑같이 보이게 하는 영상 기법이라서 이미 세상에는 없는 이들을 무대 위로 소환할 수 있다. 홀로그램 레거시 변호사들은 망자의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한 의도를 판단하거나, 고인이 죽기 전 홀로그램화를 받아들일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트윈을 진단하는 의사도 등장할 수 있다. 의사가 가상현실에 구현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우리 몸을 살피고, 이상 증세를 발견하는 것이다.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감독, 메타버스를 비롯한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메가 마케터라는 직업도 생겨날 수 있다."

해외 전문가 기고 밥 스톤 영국 버밍엄대 교수

‘제2의 인터넷’ 메타버스 ‘얼리어답터’ 되라

밥 스톤 영국 버밍엄대 교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를 향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의료·군사 분야에서 시작된 가상현실(VR)의 첨단 기술이 현재 전 산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메타버스가 인터넷만큼 널리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의 움직임은 어느 분야보다 재빠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인 ‘GTC 2020’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새 플랫폼 ‘옴니버스’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를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해 전 세계 도시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사람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만들고, 다양한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7년 가상현실 플랫폼 ‘알트 스페이스’를 인수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한 바 있다.

메타버스는 국방, 의료, 제품 개발, 엔터테인먼트, 교육, 관광, 금융, 방송 등 각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크고 작은 기업과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뒤처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메타버스 열풍이 20년 전 닷컴 버블처럼 갑자기 꺼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금융 투자가 몰리고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다.



밥 스톤 영국 버밍엄대 명예교수
현 플리머스대 초빙교수

누가 메타버스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에까지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몰리고 있다. 1~2년 안에 메타버스 투자 열풍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메타버스는 최근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확장현실(XR) 분야는 오랫동안 롤러코스터처럼 상승·하강 국면을 반복해서 지나왔다.

메타버스 얼리어답터 기업 되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방법, 메타버스 시장에서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전 먼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이 가장 먼저 고민할 점은 메타버스 방식의 업무가 필요한지다. 메타버스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거나 신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직원의 만족도가 실제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 여기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면 과대광고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자. 기업이 최신 트렌드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까 봐 메타버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고민된다면, 회사 주요 고객이나 거래처가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본격 생산 전에 평가를 위해 만드는 모형 제작 방법)이나 다른 컴퓨팅 기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만약 의존도가 높다면 기업은 과감히 메타버스에 뛰어들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 메타버스가 줌(zoom), 구글미트(google meet),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teams) 등 온라인 화상 회의 서비스보다 미래에 많은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보자.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할 때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메타버스 활용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확장현실(XR)에 잘 적응하는 직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을 것이다. 디스플레이, 광학 기술의 발전과는 관계없이 직원 중 3~5%가 가상현실병을 앓을 수도 있

코로나19로 메타버스를 향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의료·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던 첨단 기술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장했다.
메타버스가 인터넷만큼 널리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프라이버시·데이터 보안 중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스탠퍼드대학이 500명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시청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가상현실 기기는 5분 이하의 신체 움직임 데이터로 사용자를 95% 식별해냈다. 더욱 발전된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할 경우, 눈과 얼굴의 움직임, 동공의 지름, 피부 반응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보안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 메타버스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데이터 때문에 관리자와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메타버스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에 활용되지는 않을지, 복제·도용된 캐릭터로 인해 생겨날 잠재적인 영향과 피해는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 가상 캐릭터와 실제 인물을 보호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보급과 성공, 신뢰 확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포털과 손을 잡을 예정이라면, 해당 플랫폼과 포털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현재까지 소비자의 피드백이나 상품 히스토리를 통해 그들의 평판을 파악하고, 그들의 제품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온라인 보안,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IP) 측면에서 믿을 만한지도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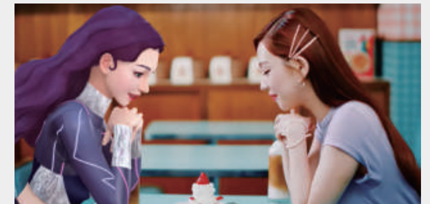
정리=정현진 인턴 기자



밥 스톤 영국 버밍엄대 명예교수가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밥 스톤

Plus Point

메타버스 시대의 그늘



SM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오른쪽)와 그의 분신 카리나 아이. 유튜브

안소영 기자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지만, 사회적·법적 논의나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문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다. 앞서 온라인 게임 '롤'이 게임 캐릭터를 모아 선보인 'K/DA'란 걸그룹이 한 사례다. K/DA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포르노가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10월 SM이 신인 걸그룹 '에스파'를 소개할 때에도 악용 우려가 쏟아졌다. 에스파가 인간 멤버 4명과 그들을 본뜬 가상세계 속 캐릭터 4명, 총 8명으로 구성된 탓이다.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상 아이돌은 합성이 간편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타버스 내 사기나 명예훼손, 사이버불링 등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꼽힌다.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는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시시각각 그 모습이 변하고 있다"며 "메타버스에서 생기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특정 규칙, 약관으로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PHOTO NEWS





사진1. 로이터연합



사진2. AP연합



마스크 벗은 美 바이든 “접종자, 야외서 마스크 벗어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월 27일 (현지시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붐비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 보건 당국의 지침 이후 백악관 잔디밭으로 코로나19 대응 연설을 하러 나오며 연단에서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연출했다(사진1). CDC에 따르면 4월 28일 기준 미국 인구의 30%에 달하는 98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43%인 1억4270만 명이 적어도 한 차례 접종을 했다.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세계 최대 확산국을 백신 접종 선진국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짧은 문답을 마친 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한 남성이 미 수도 워싱턴D.C.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하고 있다(큰사진). 앞서 4월 26일 앤디 슬라빗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은 “미국이 600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사진2)을 이용 가능할 때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FP연합

출범 1년 '롯데온'의 반격

M&A 승부사 신동빈,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나

박용선 기자

"롯데온을 '새로고침'하겠다." 그간 부진했던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ON)'이 출범 1년을 맞아 반격에 나섰다. 대규모 할인 행사는 물론 롯데온을 이끌던 대표를 전격 교체했고, 국내 이커머스 '빅 3' 이베이코리아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끈 건 '온세상 새로고침'이라는 롯데온 오픈 1주년 기념 할인 행사였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 이 행사는 4000여만 개의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롯데온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새로고침'이라는 행사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롯데온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롯데의 의지가 드러났다. 롯데온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새로고침을 누르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롯데온 '새로고침'…신규 온라인 채널 개설

롯데온은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닷컴·롭스·롯데홈쇼핑·롯데하이마트 등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유통 '절대 강자' 롯데가 온라인 시장도 잡겠다며 2020년 4월 28일 출범시켰다. 쿠팡, 신세계 쓱(SSG)닷컴 등 경쟁 업체와 비교해 온라인 유통 사업에 한발 늦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강조해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야심작으로 여겨졌다.

롯데는 '국민의 75%에 달하는 3900만 롯데 회원'을 통해 후발 업체의 단점을 극복하는 전략을 짰다. 이를 위해 기존에 따로 운영했던 그룹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 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고객 개개인이 원할 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진행했다. 롯데는 이를 '초(超)개인화 맞춤 서비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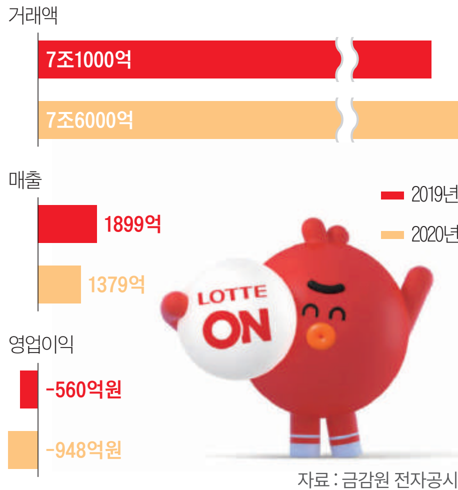
하지만 이 전략은 롯데의 생각처럼 잘 통하지 않았다. 롯데쇼핑의 2020년 이커머스 부문 매출은 1379억원으로, 롯데온 출범 전인 2019년보다 27% 줄었다. 영업적자는 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쿠팡·네이버·쓱닷컴 등의 연간 거래액이 30~40% 증가했지만, 롯데온은 7% 증가한 7조6000억원에 그쳤다. 7%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20%)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롯데온은 5%로 네이버 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과 비교해 한참 낮다.

롯데가 전략 수정에 들어간 배경이다. 오프라인 롯데 회원을 온라인 회원으로 끌어들이는 기존 전략은 유지하면서, 백화점 등 기존 채널이 아닌 새로운 판매 채널을 만들고, 아예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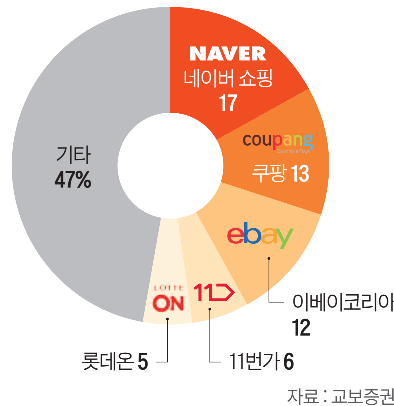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온라인 쇼핑 사업 강화를 위해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은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 모바일 페이지. 연합뉴스

롯데온 성적표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

2020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자료 : 교보증권

현재 롯데온이 시범 운영 중인 20~30대에게 인기가 많은 쇼핑몰을 모은 ‘스타일온’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롯데온이 백화점·마트 등 기존 전통 오프라인 채널의 온라인화를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을 롯데온에 입점시켜 고객을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MZ 세대(밀레니얼+Z 세대, 1980~2000년대 출생)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 판매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롯데마트의 노하우를 활용한 신선식품, 가정간편식(HMR) 등을 판매하는 식자재 전문관 ‘푸드온’도 개설한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관심

롯데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1450만 명의 고객(스마일페이 회원 수)과 30만 명의 판매자, 2억 개의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은 약 20조원이었다. 롯데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덩치로만 보면 이커머스 점유율 1위인 네이버 쇼핑과 비슷해진다. 나영호 전 이베이코리아 전략사업본부장을 롯데온 수장(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본부 대표)으로 영입한 것도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고려한 인사라는 관측이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은 3월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인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강 부회장은 이날 “오픈 초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올해는 온라인 사업에 대한 전략과 체제를 더 강화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업계에선 신동빈 회장의 인수합병(M&A) 전략에 주목한다. 신 회장은 2004년 롯데그룹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장 취임 이후 미국 뉴욕팰리스호텔, GS리테일 백화점·마트 부문, 하이마트, 삼성의 화학 계열사 등 국내외 기업을 인수하며 롯데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번에도 신 회장의 과감한 M&A로 롯데가 뒤처진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선두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신세계와 네이버의 전략적 제휴 등 롯데가 더이상 홀로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Plus Point

나영호 롯데온 대표 “오프라인 관점의 제도, 문화 없앴다”



롯데쇼핑

“롯데그룹의 ‘디지털 전환’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이자 미션이다.” 나영호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본부 대표(부사장)가 4월 12일 대표 취임 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핵심 내용이다. 나 대표는 이베이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출신으로, 이베이코리아에서 근무하기 전인 1996년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입사해 1996년 롯데닷컴 창립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나 대표는 “롯데그룹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것을 우리 이커머스사업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이어 “2018년 (이커머스) 조직이 세팅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방해되는 오프라인 관점의 제도, 프로세스, 문화가 있다면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또 “롯데 이커머스가 처한 상황에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그렇기에 제대로 된 변화의 기회가 있기도 하는 것이고, 기존과는 다른 방향, 과정,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대홍 출신, 롯데 출신, G마켓 출신, 이베이 출신이 아니라 ‘인터넷 출신’이고 ‘디지털 DNA’를 가진 사람”이라며 “우리 DNA는 디지털이어야 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디지털 방식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쓰나미 인도, 흔들리는 모디 리더십

방역보다 선거 유세…코로나 하루 확진자 세계 40%

이진혁 기자

4월 26일(이하 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의 한 공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이곳은 화장터가 됐다. 뉴델리 곳곳의 공원과 주차장 등의 공간이 화장터로 사용되고 있다. 힌두교 장례 의식에서 화장은 육체에서 영혼을 해방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절차이지만, 사망자의 가족은 종교 의식을 치를 겨를이 없어 망연자실하게 망자를 보내고 있다. 뉴델리의 한 화장터는 너무 오래 불을 지펴 굴뚝 일부가 녹기도 했다.

같은 날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텔랑가나주 남부 지역에서 선거 유세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내렸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여당이 3, 4월 대규모 주 의회 선거 유세를 하면서 방역망을 무너뜨려 제2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을 몰고 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14년 집권 후 2019년 재선까지 지지 기반을 강화해온 모디 총리는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 인도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전 세계의 40%에 이르는 팬데믹 쓰나미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고, 그가 속한 BJP는 2월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하르시 바르단 인도 보건부 장관은 3월 "인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자락에 다다랐다"고도 말했다. 인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해 9월 9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올해 2월 중순 9000명대까지 감소했다.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도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방 선거를 위한 집회와 힌두교 축제가 재개됐다.



4월 21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의 한 화장터에서 장례용 화약을 태우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주검이 누워 있다. 왼쪽 아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룸버그·EPA연합

하루 사망자 처음 3000명 넘어
인도 갑부들 전세기로 탈출
세계 최대 생산국서 백신 부족

방심한 사이 팬데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4월 27일 인도는 36만여 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4월 21일부터 이날까지 하루(26일)를 제외하고 모두 일일 확진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 정부는 4월 27일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3000명이 넘어 누적 사망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1800만 명에 달한다. CNN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보고되지 않은 사례나 미검사 사례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20~30배 더 많은 5억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언론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5월 중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만 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인도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병원 침상은 부족하고 의약품과 산소탱크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은 산소 공급량의 약 15%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인도는 산소 공급량의 90%(하루 7500MT)를 의

인도 국민과 야당은 코로나19 방역 비판 내용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트위터 등에 관련 내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료용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9월 중순 1차 팬데믹 당시의 최고치보다 세 배 많은 양이다. 산소가 떨어지며 뉴델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선 20명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인도 언론인 민트는 4월 27일 "수백만루피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인도인들이 개인 항공기로 인도를 탈출해 유럽, 중동 등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4월 23일 새벽 영국 런던 루턴공항에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한 전세기 한 대가 인도발 입국 규제를 44분 남기고 착륙했다고 더 타임스 등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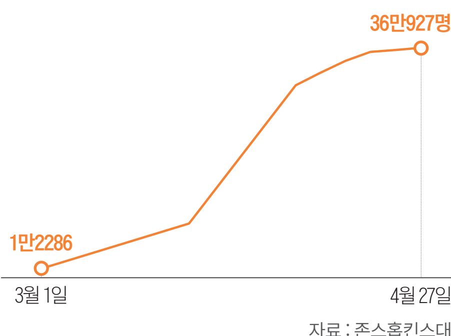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서 백신 부족 사태

모디 총리는 백신 수급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는 올해 1월 의사와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1100만 회분의 백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백신 제조 업체인 인도의 세럼인스티튜트에 라이선스를 준 아스트라제네카와 인도에서 개발한 코박신이 인류를 구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수출을 추진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국인 인도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한 인도인은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인도는 3월에야 백신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 국민과 야당은 코로나19 방역 비판 내용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트위터 등에 관련 내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는 일부 내용은 삭제했고, 일부는 인도에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게시물들이 국민의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모디 총리는 그의 정부가 범한 실수가 팬데믹을 촉진했다는 걸 암시하는 조치를 꺼릴 것"이라며 "더 많은 장례식 장작불이 그의 나라를 불태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도 우려를 낳고 있다. 'B.1.617'로 알려진 인도 변종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종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나타난 변종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종 바이러스다. 이들은 백신에 내성이 있고 감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변종의 출현이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자료 : 존스홉킨스대

Plus Point

인도 두고 미·중 백신외교 경쟁

인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백신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6일(이하 현지시각) 모디 총리와 통화에서 인도에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 장비, 산소, 백신 원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시 군수물자 통제법안인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원료 수출을 막았지만, 인도 지원을 위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6000만 회분의 백신 원료를 전 세계와 나누겠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활성화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연합체인 쿼드 동맹을 중국이 흔들까 염려해서 백신외교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백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백신 공급을) 머뭇거리는 동안 미국의 지정학적 라이벌들이 그 나라들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4월 27일 '미국의 뒤늦은 인도 지원'이라는 사설에서 "(인도에서) 지정학적 논리가 작용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인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왕웬빈 중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월 26일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파도에 맞서 싸우는 인도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도가 특정한 요구를 하면 중국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의 왕 샤오젠 대변인도 같은 날 "중국 기업들이 인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용품 확보를 서두르고, 인도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월 27일 회원국이 기부한 산소, 약품, 장비 등이 며칠 내에 인도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프랑스와 인도는 항상 하나로 뭉쳐 왔다. 우리는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영국이 보낸 산소호흡기 100개, 산소발생기 95개 등 의료품도 27일 뉴델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Interview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임 원장

“뉴스페이스 시대, 미래 기술 연구로 민간과 협력”

대전=전준범 기자

“스페이스X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아르테미스) 파트너 중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됐다.”

NASA가 4월 16일(현지시각)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선정하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과 방산기업 다이네틱스를 누른 머스크는 “3년 이내에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 달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자”라며 기뻐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국을 필두로 유럽·중국·인도 등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우주 개척의 포부를 드러내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뉴스페이스 흐름이 국내 민간 우주 산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국산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0월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한국의 뉴스페이스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것이다.

‘이코노미조선’은 한국 우주 개발의 중심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4월 26일 대전 항우연 본원에서 이상률 신임 원장을 만났다. 항우연에 우주 분야 1호 엔지니어로 입사해 35년째 근무 중인 이 원장은 3월 23일 취임하면서 패러다임 전환기에 항우연의 역할론을 재정의하는 동시에 누리호와 달 궤도선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는 미래 우주 기술을 고민하는 별도 조직을 꾸려 한국 우주 개발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했다.

중요한 시기에 원장에 선임됐다.

“올해 누리호 발사, 내년 달 궤도선 발사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누리호의 경우 지난 3월 가장 어려운 관문인 1단 추진기관에 대한 종합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현재 고흥 우주센터에서 실제 비행 모델을 조립 중이다. 조립이 끝나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 연료·산화제 등을 충전·배출하는 테스트를 한 뒤 10월 첫 발사에 도전할 계획이다.

달 궤도선에는 총 6기의 탑재체가 실린다. 한국에서 개발된 5기는 지난해 말 납품돼 각종 시험을 마친 상태다. NASA가 개발하는 나머지 탑재체 1기는 올해 6월 항우연에 입고된다. 이후 달 궤도선 비행 모델 조립을 거쳐 2022년 8월 발사할 계획이다. 모두 차질없이 끝날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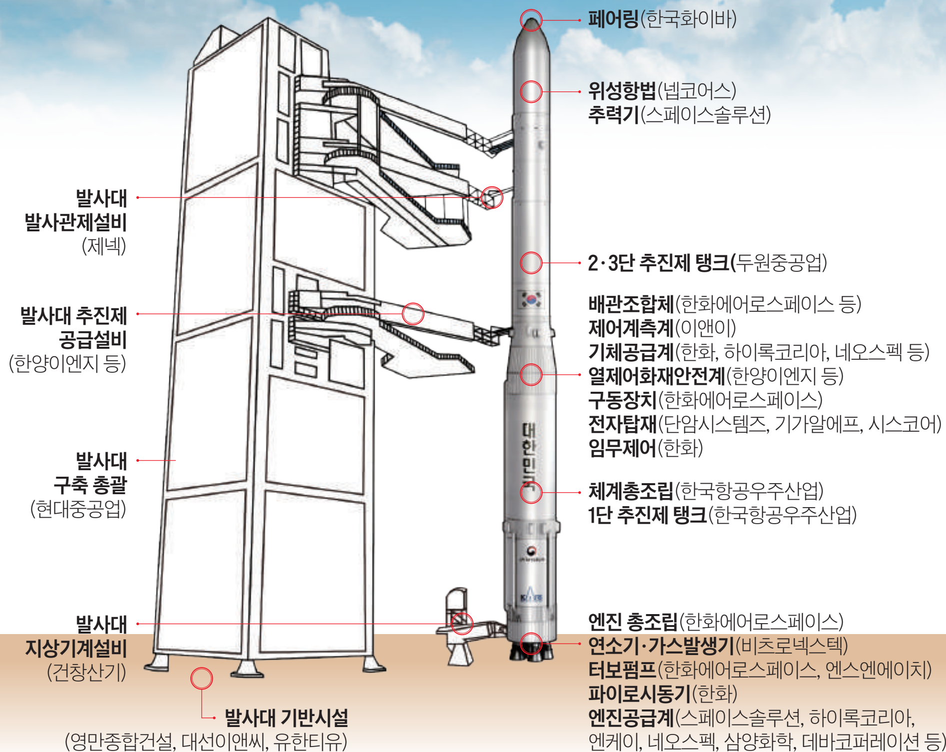
미국 등 우주 개발 선진국을 보면 민간 업체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

“한국도 미국처럼 점차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미 많은 국내 산업체가 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쌓고 있다. 최근 발사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항우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동 설계팀을 운영해 만들었다. 개발 과정에서 항우연이 확보한 시스템·본체 개발 기술을 KAI로 이전했고, 현재 2호기는 KAI가 총괄해 개발하고 있다. 내년 초에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체(누리호) 개발에도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서울대 항공공학 학사, 프랑스 국립항공우주대 발사체·인공위성 전문석사, 프랑스 폴사바티에대 자동제어학 박사, 전 항우연 항공우주시스템 연구소장, 전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등 300여 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한다는 의미의 ‘뉴스페이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미국 스페이스X 같은 혁신 기업이 우주 비즈니스로 돈 버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한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 개발은 국가가 미래에 투자하는 개념이지 거기서 경제성을 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뉴스페이스를 목격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천억원에 이르던 위성 개발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최소 2억달러(약 2216억원)는 각오해야 했던 발사 비용을 200만달러(약 22억원)까지 낮추겠다는 회사(스페이스X)가 등장하는 걸 보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한국에서도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등장할 수 있을까.

“한국인 특유의 영리함과 도전정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반도체·조선도 선진국보다 늦게 출발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다. 이들 산업에서 얻은 고급 기술을 우주 개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해 틈새시장을 확보한다면 글로벌 우주 산업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페리지항공우주·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이노스페이스 등의 우주 스타트업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민간의 우주 개발이 확대되면 항우연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길까.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앞으로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항우연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위성·발사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지금까지의 항우연 업무들은 산업체로 이관될 것이다. 항우연은 국가가 필요로 하지만 기업이 당장 하기 어려운 우주 개발이나 미래 혁신기술 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게 있나.

“항우연이 누리호 개발 같은 정부 수탁 사업 말고 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예산·인력 등이 부족했다. 지금도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정말 ‘미래적인’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선진국이 아직 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부진한 것들 말이다. 재사용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장악한 분야다. 뒤늦게 따라가는 건 의미 없다. 원장 임기 동안 미래 우주 기술을 고민하는 아이디어랩 같은 센터를 만들 생각이다.”

예산 여유가 있을까.

“항우연 한 해 예산이 약 5000억원이고, 이 중 74%를 정부 사업에 쓴다. 출연금은 23%인데, 이 23%도 항우연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항우연이 연구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보면 대략 100억원 정도인 듯하다. 공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래도 우주 기술의 미래를 구상하고 개념을 설계하는 종잣돈으로 쓸 수는 있다. 항우연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간과 조화를 이루며 전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주택 시장 큰손 부상 젊은 자산가 잡아라

강남대로 중심에서 만나는 최고급 주거공간 ‘루카831’



고급 주거시설 ‘루카831(조감도)’은 서울 역삼동 831-11 외 5필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9층, 337실로 지어진다. 마스턴제67호강남원PFV

사생활 중시·삶의 질 추구하는 수요 겨냥
전용 54㎡ A 주방에 2.7m 아일랜드 테이블
더블 역세권, 강남·서초 개발 사업 기대

이진혁 기자

주택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젊은 자산가들이 주택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낸 ‘2030 세대(법인 제외)’는 3만4688명에 달했다. 전년(2만5965명)보다 33% 늘었다. 이들이 2019년 납세한 주택분 종부세는 398억원으로, 2018년(192억원)보다 무려 107.3% 급증했다. 1년 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 시가로 따지면 약 12억~13억원이다.

2030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큰손이었다. 지난해 매매 거래된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2030 차지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9억4741만원. 창업이나 주식·가상화폐로 막대한 자본을 손에 쥔 2030 자산가들은 이제 공동주택(아파트)을 넘어 하이엔드(최고급) 주거 상품까지 넘보고 있다. 이들은 거주하는 공간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고, 삶의 질까지 높여준다고 보고 있다.

마스턴제67호강남원금융투자회사(PFV)가 선보이는 ‘루카831’은 삶과 업무의 균형을 중시하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평면 설계와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루카831은 프라이빗(사생활)과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집중했다. 입주자를 위한 프라이빗 개념을 강화하고, 온전한 휴식과 다



전용 54㎡ A의 11자형 주방에는 길이 약 2.7m의 아일랜드 테이블을 배치했다. 마스턴제67호강남원PFV



전용면적 54㎡ A 타입의 경우 창가에 배치된 약 2.7m 길이의 윈도 시트에서 휴식과 독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마스턴제67호강남원PFV

양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삶에 활력을 주는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현관 입구부터 아치형 터널을 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한편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주력인 전용면적 54㎡ A 타입의 경우 창가에 배치된 약 2.7m 길이의 윈도 시트에서 휴식과 독서 등 여유로운 시간과 개인 업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11자형 주방에는 길이 약 2.7m의 아일랜드 테이블을 배치하는 평면을 선보인다. 의류 관리기와 세탁기, 건조기를 한 번에 놓을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타입에 따라 욕조까지 구현했다.

특화설계를 통해 건물 입면 전체에 아치 형태를 적용했다. 또 인피니티 풀(하늘과 이어지는 것처럼 설계된 야외 수영장) 등의 최고급 시설을 통해 시티뷰를 한눈에 즐길 수도 있다. 회사 측은 최상의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1층에는 호텔식 인포 서비스를 운영해, 발레파킹 서비스와 무인 택배함 등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1~2층에는 프리미엄 상업시설을 조성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루카83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1 외 5필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9층, 337실 규모로 지어진다. 강남권에서 보기 어려운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희소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위탁사는 마스턴제67호강남원PFV이고,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최근 하이엔드 주거시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사업의 안정성은 물론 프리미엄까지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남 한복판서 교통·업무·편의 인프라 다 누린다

루카831은 우리나라 최대 업무지구인 강남대로 중심에 있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강남역 삼성타운을 비롯해 테헤란로와 서초 법조타운 등 강남 주요 지역 접근성도 좋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쇼핑 시설은 물론 국립도서관 등 문화 시설도 풍부하다.

신분당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강남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역세권 단지가 갖는 좋은 교통 여건이 장점이다. 강남에서 신사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울 구간 연장선 1단계가 2022년 개통 예정이고, 용산역까지 연장도 추진하고 있어 교통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개발 사업도 예정돼 있다. 서초구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초대로 일대 롯데칠성, 코오롱, 라이온미싱 부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국제 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공원 인근 옛 정보사 부지도 첨단기업과 자연, 문화 공간 등이 어우러진 대형 오피스 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 용지 전체 16만㎡ 중 공원을 제외한 9만6797㎡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루카831은 청약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루카831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향후 아파트를 청약할 때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818 디자이너빌딩에 있다. 프리미엄 카페와 다이닝 공간인 '루카키친'과 견본주택이 결합한 신개념 모델로 조성됐다.

'택배 대란' 부른 지하주차장 층고

시공비 상승 탓 29년간 층고 2.3m…'택배 대란 지속'

고성민 조선비즈 기자

서울 고덕동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갈등의 발단은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라 택배 차량(전고 2.5m)이 지하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지하주차장 층고가 조금만 높았다면 굳이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다닐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차 없는 아파트'라는 콘셉트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건설사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만든 것일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택배 대란이 불거진 '고덕그라시움'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다. 앞서 택배 대란이 발생했던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신도시의 지하주차장 층고도 2.3m다. '높이는 주차장 바닥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시행규칙이 1990년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이다. 2.3m는 택배 차량과 전고가 높은 승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높이다. 당시에는 지상주차장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들어서며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하주차장으로 택배 차량이 드나들며 '차 없는 아파트'로 운영되기 위해선 적어도 지하주차장 층고가 2.7m는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직후인 2018년 6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일부 예외는 뒀다.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2.3m로 결정하는 경우다. 이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사업 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여야 한다. 늦긴 했지만, 갈등의 불길이 확산하는 건 막은 셈이다.



4월 14일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주민들이 택배를 찾고 있다.
장련성 조선일보 기자

문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이면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설계한 단지들이 최근 속속 준공돼 택배 대란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층고 상향을 보다 일찍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층고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2.3m였을까. 시공비 상승 때문이다. 불과 0.4m 차이지만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이면 땅을 더 깊게 파야 해 시공비가 오른다. 국토부 자체 자료에 따르면, 1000가구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1층 층고를 2.3m에서 2.7m로 높이면 가구당 약 130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주차장 층고 2.3m 규정으로 그동안 건설사의 배만 채웠다는 지적도 있다. 층고 상향은 시공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 조정 시 지하주차장 하중·회전반경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줘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층고 2.7m는 건축비 가산비 항목으로 지정됐다.

다만, 택지개발이나 정비사업지의 경우 사업 주체가 건설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덕그라시움은 재건축조합이 사업 주체였고 다산신도시는 택지지구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주체였다. 이들 단지에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2.3m든 2.7m든 사업 주체가 정한 대로 시공했다는 뜻이다.

동네 상가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느는 까닭

동종업종 규약 피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창업 ‘열풍’

최상현 조선비즈 기자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 상가 내부. 최상현 조선비즈 기자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워 원래 운영하던 코인 노래방을 폐업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도난으로 인한 손실액이 적고,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 상가. 두 달 전까지 야채 가게가 있던 자리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섰다. 간판은 아이스크림 가게였지만, 매대에는 아이스크림 외에도 과자, 라면, 음료 등 다양한 식료품이 진열돼 있었다. 직원이 계산대를 지키는 대신, 소비자가 직접 키오스크에서 바코드를 찍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상가 등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창업 붐이 일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맹점이 빠르게 늘어 550곳을 돌파했다”면서 “CCTV를 통해 원격으로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업주는 하루 30분~1시간 정도만 매장 청소, 상품 입고, 정산 등을 하면 돼 투잡 목적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상가에 이미 입점해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매장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면 신규 출점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점이 쉽다.

두 번째는 도난 사고에 따른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일반 편의점에서 매일 16시간씩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 시간당 1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출된다. 하루에 16만원, 한 달이면 480만원이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많이 훔쳐 간다고 해도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오프라인 소매업은 점차 무인 매장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풍토상 도난 사고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무인화를 부추기는 유인”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특히 아이스크림은 보존 기간이 길어 무인 매장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는 소매점뿐 아니라 식당·카페 등에도 무인화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무인 창업 대세였던 코인 노래방과 독서실 등이 코로나19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도 있다. 특히 코인 노래방은 지난해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해 고사한 업체가 많고, 지금도 까다로운 방역 지침 때문에 손님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역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른 무인 창업으로 전환하는 업주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무인 창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나 판매관리비, 가맹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특히 무인 소매점은 상권 분석을 할 때 인근 매장뿐 아니라 쿠팡 등의 온라인 쇼핑몰도 경쟁 상대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욱의 술기행 Interview 주류대상 막걸리 최고상 벗드림양조장 김성욱 대표

“찹쌀로만 빚어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박순욱 조선비즈 선임기자

2018년 11월에 설립한 부산의 신생 양조장 ‘벗드림농업회사법인’의 막걸리 ‘볼빨간막걸리10’이 올해 대한민국주류대상에서 막걸리 부문 최고상인 ‘올해의 술’ 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출품한 전통주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고 알려진 막걸리 부문에서 신생 양조장 출품작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물리치고 최고상을 받은 것이다.

‘볼빨간막걸리10’은 막걸리 중에서 드물게 100% 찹쌀로만 빚어 감칠맛이 뛰어난 프리미엄 막걸리다. 대개는 멥쌀과 찹쌀을 섞어서 막걸리를 만들거나 100% 멥쌀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찹쌀은 멥쌀보다 차져, 술을 빚으면 단맛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벗드림의 ‘볼빨간막걸리10’는 100% 찹쌀로만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단맛이 강하지 않다. 오히려 열대 과일 향이 느껴질 정도로 향이 풍부하다. 김성욱 대표는 “전통 밀 누룩과 찹쌀이 발효 과정에서 시트러스(열대 과일 향), 플로랄 향(꽃 향)을 만들어낸다”라고 했다.

‘볼빨간막걸리’ 시리즈는 알코올 도수 10도 제품과 7도 제품이 있다. 부산 강서구에서 생산하는 찹쌀을 쓰는 100% 부산 술이다. 물과 누룩도 당연히 부산 것을 사용한다. 인공감미료는 일절 쓰지 않는다. 무감미료 프리미엄 막걸리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다. 막걸리로 잼과 비누도 만들고 있다.

김 대표는 “탁주·약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막걸리 효모를 이용한 미용 제품, 반려동물 관련 제품까지 생산하는 복합 발효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벗드림양조장 김성욱 대표가 올해 대한민국주류대상에서 막걸리 부문 최고상인 ‘올해의 술’ 상을 받은 ‘볼빨간막걸리10’을 소개하고 있다. 박순욱 조선비즈 선임기자

지역 찹쌀, 누룩, 물만 사용 막걸리로 잼, 비누도 만들어 “발효 전문 기업 성장이 꿈”

볼빨간막걸리10(10도)은 어떤 술인가.

“올해 대한민국주류대상 최고상인 ‘올해의 술’ 상을 받은 ‘볼빨간막걸리10’은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첫사랑’의 맛을 간직한 술로, 부산에서 생산되는 찹쌀 100%로 정성스레 빚은 프리미엄 막걸리다. 찹쌀, 누룩, 정제수만을 사용했으며 아스파탐이나 감미료를 쓰지 않고 건강하게 빚은 술이다. 전통 누룩 발효로 상큼한 시트러스, 플로랄 향을 느낄 수 있으며 볼빨간막걸리10 특유의 산미(酸味)는 술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만들어 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술을 빚어 감각적인 패키지에 담아 특히 여성 고객의 선호가 높은 술이다.”

부산 찹쌀을 쓴다는데, 100% 찹쌀만 쓰나.

"볼빨간막걸리 개발 시 멥쌀과 찹쌀을 다양한 비율로 섞어 술을 빚어서 맛을 비교했는데, 사용하는 누룩에는 찹쌀로만 만들었을 때 최상의 맛을 낸다고 판단해 찹쌀 100%를 사용하게 됐다. 찹쌀이 멥쌀과 비교해 가격은 높은 편이나,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빚은 술을 고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찹쌀 100%로 술을 빚고 있다."

찹쌀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감칠맛 때문이라고 보면 되나.

"볼빨간막걸리에 사용하는 누룩과 발효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쌀이 찹쌀이어서 찹쌀로만 술을 빚고 있다. 찹쌀의 단맛, 감칠맛과 누룩 발효 시 발생하는 산미가 가장 이상적이라 찹쌀만 고집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에는 찹쌀 외에 다른 쌀도 사용하고 있다."

시트러스, 플로랄 향이 나는 것은 누룩 때문인가.

"볼빨간막걸리를 빚을 때 사용하는 누룩은 현재 시판되는 전통 누룩을 여럿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자가 누룩을 사용해 술을 빚으면 더 좋겠지만 양조장 설립 초기에는 검증받은 시중 누룩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맛에 가장 어울리는 누룩 비율을 찾기 위해서 2년 가까이 준비 기간이 걸렸다. 그만큼 누룩 선택에 정성을 기울였다.

전통 밀 누룩만을 사용하여 술을 빚어 효모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로 발효를 진행, 전통 누룩과 찹쌀의 조합으로 시트러스, 플로랄 향을 느낄 수 있다."

술은 누가 만드나.

"술은 양조장 대표인 나와 한형숙 팀장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도심 속 작은 양조장이다."



벗드림양조장의 제품들. 앞쪽에 막걸리로 만든 비누와 잼이 보인다. 벗드림양조장

약주 '라이스퐁당'은 삼지구엽초, 감초 같은 부재료를 사용했다. 그 효능은.

"막걸리 레시피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술을 빚었는데, 그중 하나가 라이스퐁당의 레시피다. 삼지구엽초는 정기를 보완해주며 감초는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라이스퐁당은 약재의 효능보다는 찹쌀, 누룩과 어우러져 나오는 맛과 향에 더 집중했다. 라벨을 보면 알겠지만 약재의 효능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찾아볼 수 없다. 라이스퐁당에서 삼지구엽초 같은 부재료는 맛과 향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부산의 막걸리, 약주 시장은 어떤가.

"부산에서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은 서울, 수도권만큼 치열하지는 않지만 벗드림양조장이 후발 업체이다 보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소규모 주류면허 조건 완화로 소규모 양조장이 많이 생기고 신제품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쟁 제품이 넘친다.

벗드림양조장은 부산에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전국 전통주 시장에서도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 현재 매출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올해도 전시회,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고객에게 볼빨간막걸리와 라이스퐁당을 맛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조장으로는 드물게 비누를 제작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만든 막걸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막걸리가 들어간 천연비누다. 처음에는 막걸리를 거르고 남은 지게미를 재활용 차원에서 재료로 썼다. 지금은 막걸리 자체를 원료로 쓴다. 막걸리 천연비누는 식물성오일에 막걸리 지게미가 아닌 볼빨간막걸리를 넣어서 8주 이상 숙성시킨 비누로, 미백과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

막걸리를 이용한 또 다른 제품으로 대한민국주류대상을 받은 볼빨간막걸리10과 생크림을 이용해서 만든 '막걸리 잼'이 있다. 떠먹는 막걸리인 이화주와 다르게, 알코올 없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발라 먹는 막걸리 잼이다. 볼빨간막걸리의 은은한 산미가 어우러져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향후 계획은.

"벗드림양조장의 최종 목표는 발효 전문 기업이다. 탁주, 약주를 생산하는 전통주 기업에서 나아가, 막걸리 효모를 이용한 미용제품, 반려동물 관련 제품까지 생산하는 복합 발효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조만간 볼빨간막걸리를 이을 신제품도 나온다."

박순우의 스타트업 산책 〈4〉

세계인의 자기 계발 목표 달성 돕는 '챌린저스'

박순우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대표



박순우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대표
전 한빛소프트 해외마케팅 상무,
전 더나인 부사장, 전 알리바바 게임담당 총괄이사,
전 LB인베스트먼트 중국법인 대표

올해도 3분의 1이 지났다. 매년 초 목표를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그치는 사람들을 위해 러닝메이트처럼 혹은 페이스메이커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밀고 당겨주는 것을 시스템화한 스타트업이 있다. 행동 강화 플랫폼을 표방하며 모바일앱 서비스 '챌린저스'를 제공하는 기업 화이트큐브다.

이 서비스는 '헬스장 가기' '새벽 6시에 일어나기' '부모님께 전화 드리기' '일주일에 5일 이상 체중계에 올라가기'와 같이 다양한 챌린지를 쉽게 구성해 개인의 목표 달성을 돕는다. 건강, 교육, 시간, 자산 등의 영역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챌린지가 534개, 개인이 스스로 만든 챌린지가 1만1069개에 이른다. 챌린지를 선택하면 몇 명의 참여자가 언제부터 목표 달성을 위해 매달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챌린지가 없다면, 직접 챌린지를 개설할 수도 있다. 다이어트, 운동, 공부, 돌봄, 생활습관, 취미, 감정관리, 외국어, 돈 관리, 독서 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돼, 편리하게 챌린지를 찾아볼 수 있다.



챌린저스는 확고하게 목표를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그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 강화 플랫폼 서비스다. 화이트큐브

이용자는 챌린지 수행을 위한 참가비를 미리 낸다.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데, 2주간 챌린지를 85% 이상 완료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85% 미만이면 달성률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는 돈도 생긴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00%를 달성한 참가자들에게 전액 환급+상금으로 보상된다. 참고로 처음에 결제한 금액이 많을수록 상금 비율은 높아진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로도 좋지 않을까?

나는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는 습관과 하루 30분을 걷는 습관, 정리 정돈하는 습관에 있어 챌린저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평소 생각은 많으나 의지만으로는 습관화하기 어려웠던 행동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일까?

화이트큐브의 최혁준 대표는 이를 행동경제학으로 설명한다. "운동을 하기 위해 한 달에 5만원을 내고 헬스클럽에 등록했지만, 한두 번 가고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챌린저스의 '헬스클럽 가서 인증 샷' 챌린지를 하면서 1만원을 내게 되면 더 열심히 헬스클럽에 가게 되는 현상을 전통적인 경제

Company Info

설립일 2018년 8월
사업 유형 플랫폼 비즈니스
본사 서울
매출 약 11억원(2020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 61만 명(2021년 3월 말 기준)
누적 투자액 60억원



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이 개척한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적당히 합리적이며, 5만원을 내고 헬스클럽을 꾸준히 가서 건강해지는 신체적 보상보다 당장의 1만원이라는 금전적 손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는 강한 니즈(요구)에 의해 헬스클럽에 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원효대사가 밤에 맛있게 마신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에 담긴 물이었음을 보고 깨달았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나 한자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는 대표적으로 사물을 어떤 프레임에서 보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행동경제학과 챌린저스의 작동원리를 설명해준다.

B2B 비중 늘리는 챌린저스

챌린저스는 2018년 최혁준 대표가 대학 선후배 3명과 함께 만든 모바일 서비스다. 당시 그들은 오프라인 자기 계발 커뮤니티 '빙 앤드 두잉(being and doing)'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약 600명과 7년간 '내가 원하는 내가 된다'라는 목표로 챌린지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챌린저스 모바일 서비스를 구상했다. 본인들이 모임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험과 성취감을 다른 사람과도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챌린저스는 61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이용 중이고, 누적 거래액 1000억원 이상, 누적 참가 건수 200만 건, 평균 성공률 89%, 재구매율 60%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6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 챌린저스는 기업 간 거래(B2B) 챌린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300개 이상의 기업과 제휴했다. 기업과의 챌린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임직원의 행복 증진, 심리 건강, 자기 계발, 업무 효율 등 개선을 위한 임직원 전용 챌린지이고, 두 번째는 기업 홍보 효과를 위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벤트성 프로젝트다.

임직원 전용 챌린지는 LG전자, SK에너지 등 여러 기업에서 임직원끼리만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직원들은 챌린저스 앱에서 회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기업회원으로 인증하고 전용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다. 펀드형은 임직원들이 1만원의 참가비로 신청하면 회사에서 1만원을 함께 지원하고, 목표 달성 때 추가로 상금까지 지급하는 방식, 자기 계발 시간 부여형은 목표 달성 시 회사에서 학습 시간 또는 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업들과의 이벤트성 프로젝트는 한화그룹과 '63시티 계단 걷기', 아모레퍼시픽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대여성암병원과 '유방암 극복프로젝트' 등의 사례가 있다.

지속 성장 가능할까…"건강 분야 집중"

화이트큐브는 3단계에 걸친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는 1단계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이며, 2단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회사'로 나아가는 중이다. 3단계는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회사'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기'라는 행동을 하도록 도왔다면, 2단계에선 '14일간 2kg 감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다. 챌린저스는 이용자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에 각 4개씩 총 12개의 챌린지를 구성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도 펼칠 수 있다.

"화이트큐브는 건강, 교육, 시간, 자산 관리 등의 영역 중 처음에는 건강(wellness) 분야를 깊이 있게 파보려고 한다."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문에 대한 최혁준 대표의 현답이다.

화이트큐브는 앞으로도 사용자의 지속 증가, 챌린지의 지속 증가, 높은 리텐션(잔존율)과 반복 참여 유지 등 수많은 도전에 맞닥뜨릴 것이다. 최혁준 대표와 그의 팀이 하나하나의 과제를 달성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도 희망한다.

Plus Point

美 웨이베터 100만 명 사용자

화이트큐브의 챌린저스 같은 비즈니스 시장은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미국에도 챌린저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웨이베터(Waybetter)라는 기업은 2010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으로, 피트니스와 식단 관리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한 도전(게임)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다. 연회비 79.99달러(약 9만원)를 지불해야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

일정한 참가비를 내 참여하고 심판에게 도전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패한 사람들의 참가비를 상금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투자 금액은 750만달러(약 84억7500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100만 명의 누적 사용자가 약 1억달러(약 1130억원)의 상금을 돌려받았다.

이 밖에도 좋은 습관 형성의 영역에서는 스틱(stickk), 패뷸러스(fabulous.co) 등의 미국 기업이 있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로는 다른 스타트업 기술 분야와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부족하다. 이는 거꾸로 챌린저스에는 미국 등 해외 시장 도전의 기회로도 해석된다.

BUSINESS

삼성家 세기의 상속세

이건희 유족 상속세 12조 이상…미술품 2만여 점 기증

안상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낸다. 이중섭의 '황소',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만3000여 점은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기부하며, 유산 가운데 1조원은 감염병 예방과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 사회 환원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한다.

삼성전자는 4월 28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며 "국가 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 이건희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유족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조선일보 DB

12조원의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총액의 3~4배 수준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다. 2011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사망 당시 유족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3조4000억원가량이다.

지금까지 국내 최대 상속세는 2018년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 중인 9215억원이다. 올해 1월 별세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4500억원, 지난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의 상속세는 2700억원 규모다. 이외 이우현(2000억원) OCI 사장, 신창재(1840억원) 교보생명 회장, 이태성(1700억원) 세아홀딩스 대표 등이 거액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대부분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는 약 19조원에 달한다. 주식 상속세액만 약 11조336억원에 이른다.

다만 유족들은 이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 상속 비율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도 13년 만에 지켜지게 됐다. 이 금액은 1조원가량으로 감염병(7000억원)과 소아암·희귀질환(3000억원) 어린이 환자를 위해 쓰이게 된다. 감염병 기부액 중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산 규모

보유 지분

보유 지분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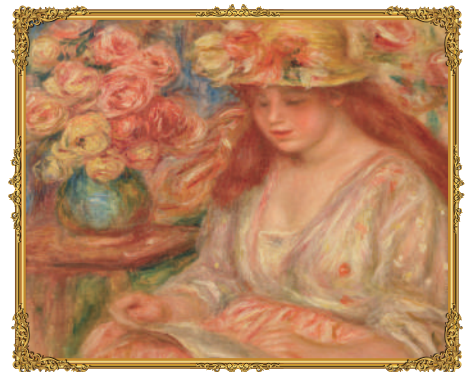


기타 재산

- 미술품 (감정 2조5000억~3조원)
- 부동산
- 현금



자료 : 금융감독원·재계 추정



'이건희 컬렉션' 중 하나인 르누아르 '책 읽는 여인'. 조선비즈 DB

SK하이닉스 깜짝 실적
1분기 영업익 1.3조 전년比 66%↑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회사는 1분기 매출 8조4942억원, 영업이익 1조3244억원을 기록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8%, 66% 증가했다.

통상 1분기는 SK하이닉스 실적 비수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PC와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가 늘었고, 주요 제품의 수율이 빠르게 개선되며 원가 경쟁력이 향상됐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오른 것도 호실적에 힘을 더했다. D램은 스마트폰·PC·그래픽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며 전 분기보다 출하량이 4% 증가했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용량 제품 판매량이 늘면서 전 분기 대비 출하량이 21% 늘었다.

전문가들은 D램 가격 상승 지속, 낸드플래시 시황 개선으로 SK하이닉스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봤다. 회사는 이날 파운드리 사업 확대도 시사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전경. 연합뉴스

BTS 소속사 하이브
美 '타임' 선정 세계 영향력 100대사

방탄소년단(BTS)을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는 하이브(HYBE·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 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에 이름을 올렸다. 하이브는 '개척자(Pioneers)' 부문에 올랐다.

이번 명단에는 구글, 테슬라, 애플 등도 포함됐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하이브 외 삼성이 들어갔다.

'타임'은 하이브에 대해 "2005년 설립된 하이브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 음악 업계에서 과거 언더독(이길 확률이 적은 팀) 기획사였지만, 현재는 세계 슈퍼그룹 BTS에 힘입어 고공행진 중"이라며 "하이브는 과거의 디즈니처럼 팬 친화적인 경험과 제품의 세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티스트의 IP(지식재산권)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타임'은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한 데 이어 미국 이타카홀딩스 미디어 그룹을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에 인수한 점도 거론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벤츠 '더 뉴 S클래스'
7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 1.4억~2.2억원

메르세데스-벤츠가 4월27일 '회장님차'로 불리는 S클래스의 완전변경(풀체인지) 7세대 모델을 한국 시장에 선보였다. 7년 만에 선보인 완전변경 모델이다.

S클래스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디젤과 가솔린 엔진 조합의 총 4개 트림으로 우선 출시된다. 가격은 1억4060만원부터 2억1860만원까지다.

벤츠는 혁신 기술을 적용해 주행의 즐거움은 높이면서도 안전성은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적용된 '플러시 도어핸들'은 운전자가 다가가거나 도어핸들 표면을 만졌을 때 돌출된다. 차가 출발하거나 차 문이 잠기는 순간에는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간다. 뒷좌석에는 안락함을 더했다. 일부 상위 트림에는 두 개의 11.6인치 풀 HD 터치스크린과 7인치 태블릿이 적용됐다. 온열 기능이 포함된 헤드레스트 쿠션, 43.5도까지 조절 가능한 등받이 등의 사양도 갖췄다. 도로 위 사무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S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ChosunBiz 2021 미래 금융 포럼 라젠 셰스 구글 클라우드 AI 및 산업솔루션 담당 부사장

"AI, 향후 10년 全 산업 대변화 불러올 것"

이윤정 조선비즈 기자

A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 리포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으로 자신의 소비 패턴과 관심사까지 분석한 리포트라 만족도가 높다. 생각지 못한 여윳돈이 생겨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니 은행이 AI 분석을 통해 A씨에게 적절한 펀드 상품도 추천해줬다. 비대면으로 상품에 가입하다 보니 생긴 궁금증은 AI 챗봇에 물어 간편하게 해결했다.

라젠 셰스 구글 클라우드 AI 및 산업솔루션 담당 부사장은 4월 29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1 미래 금융 포럼' 기조강연에서 "앞으로 10년간 모든 산업, 기업은 AI로 인한 대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단언컨대 AI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봐온 기술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즉 앞서 나온 A씨의 금융 생활은 AI가 만드는 변화의 시작일 뿐, 향후 고객 경험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셰스 부사장은 AI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먼저 고객과 상호작용이 더 개인화한다. 그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더욱 잘 이해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계속해서 점원이 따라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트렌드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금융 산업에 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셰스 부사장의 판단이다.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해 금융사는 고객에게 더 새롭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규제는 강화되고 금융 사기는 증가해 다양한 방어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셰스 부사장은 "결국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고객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경험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구글이 '말하는 AI'를 만들어 고객센터에 적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리스크 미리 아는 게 고객 만족 지름길

그는 "콜센터 상담원의 효율적인 응대가 가능해졌고, 고객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 위험 감지·관리 능력도 AI로 개선할 수 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각 금융사가 어떤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채면 사고 방지는 물론 고객 대응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셰스 부사장은 "영국계 글로벌 은행 HSBC의 경우 AI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AI로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금융사는 어떤 자세로 AI 기술을 대해야 할까. 셰스 부사장은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만 고객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점점 더 정교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AI가 어떻게 예측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AI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AI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의 공정성 역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셰스 부사장은 "공정성과 편견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입력된다"라며 "AI에 심어지는 편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려면 결국 분석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객 경험 무궁무진한 변화
기존 금융 서비스 변해야 생존
AI에 심어지는 편향 완화해야


구글

라젠 셰스 구글 클라우드 AI 및 산업솔루션 담당 부사장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학사, 컴퓨터 공학 석사, 전 재플릿 수석 엔지니어, 전 VM웨어 프로덕트 매니저, 전 구글 워크스페이스 개발 총괄

ChosunBiz **2021 미래 금융 포럼** 스캇 멀린스 AWS 글로벌 금융서비스사업 개발 총괄

"금융의 미래는 클라우드 접목하는 지금"

박소정 조선비즈 기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이하 JP모건)는 10년 전 총 31곳에 6만 대의 서버를 두고, 2만 건의 데이터베이스와 32만 대가 넘는 실물 데스크톱을 운용했다. 이 은행은 이후 이런 방대한 실물 데이터를 클라우드(가상 서버)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JP모건은 "은행은 가능한 한 빨리 인공지능(AI) 클라우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이 이뤄낸 변화의 중심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있었다. AWS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보안·규제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도입에 보수적이었던 금융 기업까지 이제는 AWS와 속속 손을 잡고 있다.

스캇 멀린스 AWS 글로벌 금융서비스사업 개발 총괄은 4월 29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1 미래 금융 포럼' 기조강연에서 "클라우드 기술로 금융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이 금융의 미래"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클라우드'라는 도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아 여러 혁신을 시도하는 현재야말로 금융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멀린스 총괄은 클라우드를 통해 금융 업계가 네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 번째로 '고객의 경험 향상'을 꼽았다. 멀린스 총괄은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고 소통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회사인 '블루라인'을 예로 들었다. 멀린스 총괄은 "블루라인은 자국 내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아마존 텍스트랙(아마존의 AI 기반 문자인식 서비스)'을 통해 대출 문서 결재를 자동화했고, 덕분에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더 빨리 조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멀린스 총괄은 두 번째로 같은 데이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때보다 클라우드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미래에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을지 모르기 때문에 새 저장소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금융사들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 혁신을 시험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더 빠르게 제공

세 번째 변화는 '리스크 관리'다. 멀린스 총괄은 "현재 금융 서비스 업계는 끊임없이 보안을 위협당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클라우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저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확장성과 민첩성으로 리스크를 계산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마스터카드 산하 '뉴데이터 시큐리티'는 AWS의 머신러닝 플랫폼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로 사기 발생 전 익명화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했다.

멀린스 총괄은 마지막으로 '발 빠른 고객 서비스 혁신'을 들었다. 그는 "AWS는 아이디어에서 구현까지 시간을 단축하도록 돕고 있다"며 "수개월 걸렸던 조달 기간이 단 몇 시간 만에 구현되고 있다"고 했다. 멀린스 총괄은 결론적으로 클라우드가 금융업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기관은 클라우드를 사용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더 빠르게 제공하면서 금융 업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 아마존웹 서비스로 변화
은행, AI 클라우드 채택해야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 제공



AWS

스캇 멀린스 AWS 글로벌 금융서비스사업 개발 총괄
텍사스 A&M대 정치학 학사, 현 핀테크 샌드박스 자문위원, 전 나스닥OMS 총괄임원(Managing Director), 전 JP모건체이스 전무

봄철 기지개 켜는 금융권 스포츠 마케팅

좋아하는 야구단 이름 딴 통장 만들면 우대금리도

김문관 기자

국내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의 30년 골수팬인 직장인 김영권(43)씨의 별명은 '부처님'이다. 그가 수년간 성적이 좋지 않은 한화이글스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찐 팬(진짜 팬을 뜻하는 신조어)'임을 아는 지인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김씨는 최근 한화이글스의 이름이 들어간 은행 적금에 가입했다. 김씨는 "올해 한화이글스의 우승을 기원하며 매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넣을 것"이라고 했다. 4월 3일 KBO(한국야구위원회) 정규 리그 개막과 함께 금융권의 스포츠 마케팅도 불붙고 있다. e스포츠(온라인 게임), 배구, 골프 등 분야도 다양하다. KBO 정규 리그 타이틀 스폰서사인 신한은행은 3월 29일부터 '신한 프로야구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2021 신한 두산베어스 적금'처럼 가입자가 선택하는 구단에 따라 상품명이 맞춤형으로 정해진다. 기본금리 연 1%에 조기가입 우대금리 0.2%포인트(6월 30일까지 가입자 대상)를 더해 가입자가 선택한 구단의 성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최고 1.2%포인트 준다. 가입 최저 금액 문턱도 낮다. 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실적도 쏠쏠하다. 이 적금의 판매 계좌 수는 2019년 12만2817개에서 지난해 13만4311개로 9.4% 증가했다. 올해는 출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4월 27일 기준 4만4000개가 판매돼 전년 실적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한은행 측의 관측이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e스포츠 리그 관련 마케팅에 한창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다국적 게임사 라이엇게임스의 히트작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LCK와 인연을 이어 나가며, LCK경기장 내 우리은행 브랜드 광고와 현장 이벤트를 통해 전 세계로 이름을 알릴 계획이다. 상품 판매에도 LoL을 활용한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우리원(WON)뱅킹'을 최초로 가입하고 적금과 청약 저축 등 비대면 저축 계좌를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약 6만 개의 LoL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이템 지급 이벤트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고객 반응이 뜨겁다"라고 했다.



4월 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에서 관중이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분야 스폰서십 활발
"제2의 김연아 찾아라" 분주
1분기 골프 보험 판매 138% 증가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LoL 프로게임단 샌드박스 게이밍과 네이밍 스폰서십을 맺었다. KB국민은행은 △샌드박스 게이밍이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및 팬덤을 활용한 다양한 팬마케팅과 이벤트 진행 △샌드박스 게이밍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인기가 높아진 골프와 K리그(프로축구) 관련 마케팅에 한창이다. 하나금융은 4월 20일 소속 골프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든든미래 홀인원' 종합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고정된 수입과 지출이 없는 프로골프 선수들의 특수성에

따라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 프로그램이다. 앞서 4월 2일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선수들의 '든든미래 어시스트'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K리그 선수들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K리그 타이틀 스폰서사다.

배구 종목의 경우 저축은행 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업계 3위권인 호주계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여자 프로배구단 창단 작업에 한창이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높이기가 목적이다. 페퍼저축은행은 4월 22일 김형실 전 여자 배구 국가 대표팀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하고, 4월 28일 '2021 한국배구연맹(KOVO)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활용해 헝가리 출신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 선수를 지명했다. 일각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여자 배구 간판스타인 김연경(흥국생명) 선수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중형사인 OK저축은행은 남자 배구단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OK저축은행 배구단은 창단 2년 만인 2015년 '브이(V)리그 남자부'에서 전통의 강호 삼성화재를 꺾고 우승컵을 들면서 '루키'로 이목을 끈 바 있다. 2016년에도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지난해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배구단 관계자는 "배구단 운영은 연 60억~100억원대 비용이 투입된다"라며 "가성비 좋은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했다.

"제2의 김연아 찾아라"…유망주 지원 활발

KB금융그룹은 '피겨 스타' 김연아의 후계자를 찾는 작업에 한창이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06년 김연아와 후원선수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고모델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제2의 김연아를 발굴하기 위해



여자 프로배구 간판스타로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는 김연경 흥국생명 선수. 연합뉴스

동계 스포츠 후원 영역을 넓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봅슬레이(원윤종, 서영우, 국가대표팀), 스켈레톤(윤성빈, 국가대표팀), 쇼트트랙(심석희, 최민정, 국가대표팀), 피겨(차준환, 임은수, 국가대표팀), 컬링(국가대표팀) 등 여러 종목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에 대한 공식 후원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기회와 환경을 지원한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골프 인기에 골프 보험 판매도 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소수 인원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기가 늘면서 골프 보험 판매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골프 보험은 △골프 경기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상 △골프 활동 중 타인의 재물 및 신체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등으로 구성된 보험이다.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의 다이렉트(온라인) 골프 보험의 보험료는 7만원대(40대 남성, 1년 기준)다. 판매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90건에서 올해 1분기 929건으로 1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업계 2위 현대해상의 골프 보험 판매 건수는 242건에서 432건으로 68% 늘었다.



2006년부터 KB금융그룹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피겨 스타 김연아. KB손해보험

Plus Point

"슈퍼리그 만들자" 논란에 들썩이는 유럽 축구계

유럽의 프로축구계가 최근 새로운 리그 창설 움직임에 들썩이고 있다. 이른바 '유럽슈퍼리그(ESL)' 창설을 둘러싼 논란이다.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프리메라리가)의 인기 구단인 레알마드리드와 영국 프로축구 리그(EPL) 인기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일부 거대 자본 구단들이 자국 리그가 아닌 국적 불문의 ESL 창설을 추진하자 유럽축구연맹(UFEA)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알렉산데르 체페린 UFEA 회장은 4월 25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ESL 창설에 동의한 12개 구단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SL 창설을 추진한 12개 구단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이상 영국),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AC밀란, 인터밀란,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다.

이들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마케팅이 진행되는 미국 '슈퍼볼' 같은 리그를 창설할 계획이다. 슈퍼볼은 미국 프로미식축구의 챔피언 결정전이다. 올해 슈퍼볼의 30초당 TV 광고 단가는 61억원에 달했다.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등도 종종 슈퍼볼에 광고를 낸다.

ESL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작지만, 실현될 경우 해외 축구 마케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코스피보다 커진 국내 가상화폐 시장

韓 가상화폐 투기 열풍…정부 시계는 아직도 3년 전

박현익 조선비즈 기자

하루 거래액 20조원 돌파
투기수요 폭증 사회문제 우려도
정부는 "금융투자 아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언급하며 유명세를 탄 가상화폐 도지코인(Dogecoin)은 4월 28일 전 세계 시총이 37조원으로 보름 전인 4월 13일(1조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전인 4월 20일(58조원)과 비교하면 56% 이상 줄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상화폐 시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급등락 위험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투자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광풍(狂風) 수준으로 번졌다는 평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만 최대 200개로 추산되고 4월 들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한때 3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2월 기록했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약 7조원)의 3~4배다. 또 최근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15조원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고려하면 유동성이 주식보다 가상화폐로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내려는 투기성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금융 당국 수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정부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사진은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30분 만에 1000배 뛴 코인까지…잡코인 판치는 한국 시장

최근 가상화폐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4월 23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부자 증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급락했다. 주식 등 투자수익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기존 최대 20%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코인 정보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월 22일 5만5000달러(약 620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 날 4만7000달러(약 53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약 15% 하락했다. 그러나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했고 4월 27일 오후 기준 5만5000달러에 다시 근접했다. 같은 시각 국내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는 64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코인)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의 경우 4월 20일 451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연일 폭락해 4월 23일 232원까지 내려갔다가 4월 28일 293원으로 회복한 상태다. 4월 13일만 해도 82원에 불과했었다. 비슷한 시기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 상장된 아로와나토큰(ARW)

이란 코인은 10만% 넘게 뛰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ARW는 4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3시 1분 5만3800원까지 약 1000배 폭등했다. 하지만 금세 급락세로 전환했고 일주일이 지나 8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한국은 유독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중소 규모 가상화폐가 많아 다른 나라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만 약 180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약 60종이 거래되고,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종만 거래된다.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 비율은 6%이고 나머지 94%는 알트코인에 쏠려 있어 투기 성격이 훨씬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복제해 코드 좀 붙이면 뚝딱 만들어진다"며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주식시장 상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 "미술품 거래를 왜 보호하나"

이처럼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최근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됐고 이는 지난 2018년 1차 가상화폐 광풍 시 정부 대응을 상기시켜 거센 반발을 불렀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뒤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곤두박질쳤던 사건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 발언에 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월 23일 등록돼 4월 27일까지 14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는 투자 기회도 없다면서 코인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낸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리나케 정치권에서 수습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 위원장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3년 전 박 장관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악몽을 떠올린 것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일련의 현상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가상화폐 투자자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여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데 무턱대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은 위원장은 "금융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은 위원장의 사퇴 촉구 글을 올린 청원인은 "미술품과 비교하며 가상화폐 시장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라고 했다.

Plus Point

선진국, 금융자산 인정 안전 투자 환경 조성 노력

해외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 관리 아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주식처럼 거래소 상장 시 금융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투 트랙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 주 단위로는 거래소 등 유통 시장을 관리·감독한다. 예컨대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특화 법률을 만들어 거래소 면허제를 도입했다. 거래소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운영 관련 공시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4월 14일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세계 최초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상장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상화폐 교환 업자로서 사업이 가능하며 거래소는 가상화폐 불법 유출을 막아야 할 의무를 진다. 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주식 상장처럼 금융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제도화했다. 두 나라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할 수 있다. 유럽도 프랑스가 기업성장변화법을 통해 가상화폐 공개(ICO)를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포괄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미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을 겪었으면서 3년이 지나도록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시장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엄여진의 마켓잠망경 〈13〉

공매도 재개를 맞이한 현명한 자세

엄여진 쿼드자산운용 PEF운용본부 매니저

5월 3일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인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空賣渡)가 재개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14개월 만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 여론과 각종 정치적 이벤트에 밀려 공매도 금지 규제의 한시적 연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추정치만 280조원 이상인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이어 가는 게 더는 무리라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국내에서는 불법 블록딜에 연루되거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했다. 공매도 관련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과 회의감이 만연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의미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에 당국은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나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미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가령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공매도를 했을 경우 그동안은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4월 자본시장



엄여진 쿼드자산운용 PEF운용본부 매니저
연세대 경영학, 전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3일 중대형주 공매도 재개
높은 대차잔고 주가 하락 아냐
밸류 높거나 급등 종목 주의

법 개정으로 이제는 과징금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다. 또 당국은 대차거래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거래 내용을 5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다. 투자자는 금융 당국이 요구할 시 거래 내용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내 증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기에 공매도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이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차거래는 공매도 외에도 전환사채(CB)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다. 기존에도 개인 투자자의 대주거래는 가능했으나 높은 이자율과 대주 물량 부족, 짧은 상환 기간 등으로 인해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도 어렵고 대주 조건도 불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9년 기준 대차 시장은 연간 평균 잔액이 67조원인 데 반해 대주 시장 규모는 230억원에 불과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 당국은 대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6개에서 28개로 늘어나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개인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 한도(3000만원·7000만원·무제한)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공매도에 불리한 시장 환경

상대적 약자인 개인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코스피에서는 공매도 재개 전부터 지수 선물의 롱(매수)과 쇼트(매도) 거래가 상시로 일어난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공매도에 노출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즉 지수 선물이 존재하지 않고 시가 총액과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은 현물인 주식의 쇼트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당국이 지수 선물이 존재하거

대차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순히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할 뿐 주가의 방향성을 바꿔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부정적인 심리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나 거래가 비교적 많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싶다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공매도 잔고 통계 자료를 보거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차거래 잔고를 확인하면 된다.

관심 있는 종목의 대차잔고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가 하락에 베팅한 물량이 많다고 해석해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것이 맞을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차잔고가 곧 주식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차잔고가 모두 공매도로 귀결되지는 않으며, 대차거래는 펀드 운용상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된다. 차라리 해당 종목이 앞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는지, 차익 거래 목적이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편이 낫다.

물론 이런 자료로 수급을 예측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꾸준히 스크린하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내가 모르는 뭔가 나쁜 게 있나 보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걸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차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순히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할 뿐 주가의 방향성을 바꿔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부정적인 심리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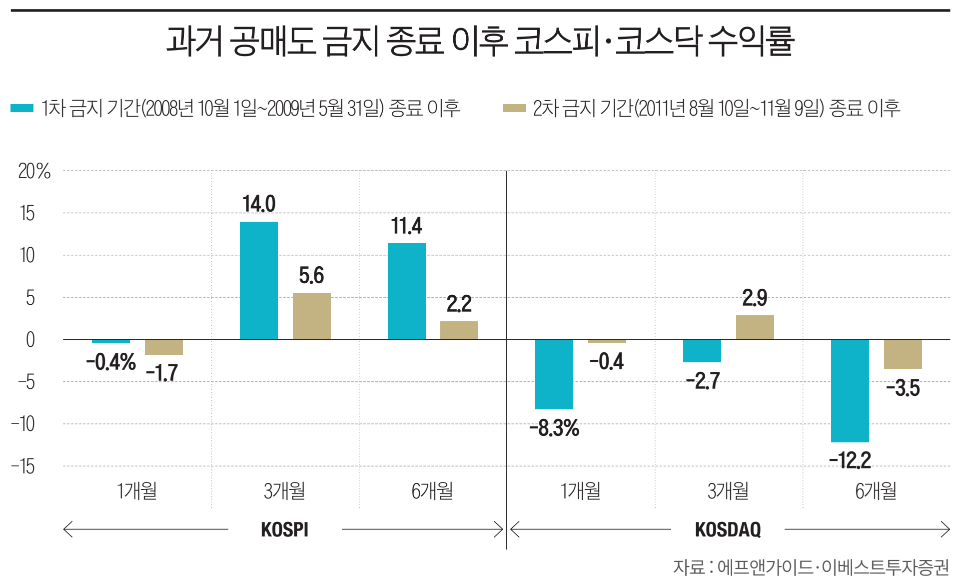
만약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실적주라면 기업 실적이 실제로는 시장 컨센서스(다수 전망)보다 낮을 거라는 예상이 공매도 양상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기업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낮고 공매도가 이뤄지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시장 기대치가 높은 만큼 공매도를 통해 실현되는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나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도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반대로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했거나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대차잔고가 늘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해당 종목의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공매도 재개를 맞이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에 관한 부분적인 통계 자료와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려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분석에 집중하는 것이 시장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대비책이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에 해당하는 350개다. 공매도 금지 전 이 종목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90%에 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 효과를 부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됐더라도 기존처럼 공매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들 수 있다.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고, 많은 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실적 개선 국면에 있는 등 시장 환경이 공매도에 유리하지 않아서다.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갖자.



자료 : 에프앤가이드·이베스트투자증권

취임 100일 바이든 첫 의회 연설

“낙수경제 작동한 적 없어”…‘부자증세’ 실험 통할까

박용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증세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하루 전인 4월 28일(이하 현지시각)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부자 증세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미국 가족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달러(약 1130조원)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달러(약 904조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인적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자 증세를 위해선 ‘슈퍼 부자’의 연방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연 100만달러(약 11억3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200만원) 미만인 국민은 어떠한 증세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공정한 조세 부담을 위해 협력에 나서야 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낙수(trickle-down) 경제는 결코 작동한 적이 없다”며 “경제가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성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8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뒤에 미국 최초 여성이자 유색인종으로 2인자 자리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손뼉 치고 있다. 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멈출 수 없다.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 중국,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며 2조2500억달러(약 2542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구상인 ‘미국 일자리 계획’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미국 일자리 계획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미국 그 자체에 대한 투자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일자리 계획”이라며 “비국방 분야에서 역대 최대 연구개발 증액”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감염병과 경제위기, 민주주의가 공격받는 상황에 취임했지만 미국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100일간의 구조와 재건 이후 이륙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구조 계획’이라 명명한 1조9000억달러(약 2147조원) 규모의 감염병 대유행 경기부양안, 2억 회 이상의 백신 접종 등을 통한 경제 회복을 100일간의 성과로 부각시켰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기조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40여 년간 미국 정가를 지배한 ‘작은 정부’ 철학을 버리고 ‘큰 정부’로의 대전환을 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증세 실험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인사로부터 반발에 직면해 있어 큰 정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순탄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결 포인트 1

"미국, '백신 무기고' 되겠다" 인도에 백신 2000만 회분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arsenal of vaccine)'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처럼, 백신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백신 대국'인 미국이 풍부한 백신 물량과 원천 기술, 장비를 토대로 글로벌 보건 지원과 협력해 '백신 외교'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공고한 우호 관계에 따라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미국이 이미 주문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000만 회분 공급 등 인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앞서 4월 2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을 타국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 연합뉴스

연결 포인트 2

바이든 "북·이란 핵 위협 대응" "중국과 경쟁, 갈등은 원치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테러리즘과 핵 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감염병 대유행을 들며 "어떤 나라도 우리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미국 기술·지식재산권 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했다. 또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고, 이는 분쟁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

연결 포인트 3

獨·佛, 美 최저 법인세율 지지 아일랜드·룩셈부르크는 반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안과 관련, 독일과 프랑스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과 브뤼노 르메이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4월 27일 독일 매체 '디 차이트(Die Zeit)'와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숄츠 장관은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제안에 반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안에 매우 낙관적인 입장"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과세 레이스를 이번에 끝내겠다"고 했다.

르메이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2% 수준으로 정하는 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1%가) 협상을 거쳐 결정되면 우리도 따르겠다"고 했다.

반면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등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택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온 국가들은 '세율 자주권'을 내세우며 미국의 법인세율 하한선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뤼노 르메이르 프랑스 재무장관(왼쪽)과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로이터연합

최용민의 글로벌 경제 톡톡 〈4〉

통화의 국제화와 디지털 화폐전쟁의 그림자

최용민 WTCS 대표

세계 7위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 무역 업계에 꿈이 하나 있다. 우리 화폐인 원화를 국제화시켜 수출입 거래를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다. 매번 달러화나 유로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거나 대폭 낮출 수 있고 수시로 출렁이는 환리스크도 제거할 수 있다. 무역 업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거래 금액을 확정하고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 3~6개월이 소요돼 태생적으로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또 다른 이점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외환 관리 전담 인력이나 환전을 위한 서류 준비 등이 불필요해 국내 거래 업무와 통합되면서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어진다. 그러나 원화의 국제화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해 보고 흐지부지됐다. 상대가 있는 수출입 거래에서 결제 통화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적인 신인도와 유통량 그리고 그 거래(보관) 비용 등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상품 무역 1위 국가로 올라선 중국이다.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위상 제고를 최고의 국가 어젠다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 내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 예금 및 송금, 신용카드 등의 업무에 초점을 맞춰 위안화 국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 해부터 홍콩에서 위안화 예금이 가



최용민 WTCS 대표
광운대 경영학 박사, 한국무역협회
전 FTA 통상연구실장·전 베이징 지부장·
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고 2007년에는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을 통해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 채권(일명 딤섬본드) 발행을 시작했다.

중국은 이런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무역 결제에 단계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베이징, 톈진 등 18개 지역(성급)을 시범 도시로 선정하면서 거래 대상국도 전 세계로 확대했다. 2011년 7월에는 중국 전역에서 위안화 무역 결제가 가능하도록 범위 제한을 폐지했다. 더불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위안화 투자를 허용하는



디지털 화폐가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디지털 화폐 도입 나서

최근 중국은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경제권 국가 중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 시범 사용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서는 20만 명에게 디지털 화폐(총 4000만위안·약 72억원)를 뿌리면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위안화 위상이 달러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 정책의 폭이 확대되고 무엇보다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금융 제재에서 보다 자유롭게 되는 엄청난(?) 성과도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정 화폐로서 국제화 로드맵은 위안화보다 유로화가 먼저 깃발을 높이 들었다. 2002년부터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국제 결제 시장에 얼굴을 내밀면서 국제 통화 다원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연합해 통화장벽을 없애고 비용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외에 달러화 의존도 탈피라는 성과도 드높였다. 역내 국가들끼리 교역하는 경우 자국 통화를 이용하는 것과 같아 거래 비용을 낮추어 교역을 촉진하고 환리스크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그러나 가치 측면에서 유로화의 위상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출범 시 유로화 환율이 1달러당 0.8유로에서 0.9유로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거의 20여 년이 흐른 최근에도 0.85유로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로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40%에 육박해 국제화에 대한 우려 단계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도전자는 위안화나 유로화가 아니다. 얼마 전만 해도 변방에 머물던 디지털 화폐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거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화폐의 영토 확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민간이 만든 것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간의 대결로 구도가 짜여지고 있다. 발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의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 디지털 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3000달러(약 339만원) 안팎이던 수준에서 벗어나 6만달러(약 6780만원)를 넘나들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각국은 CBDC로 디지털 지불시대를 주도하겠다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민간 화폐를 공격하고 있다. 첫째로 민간 화폐는 신뢰성이 없고 가치를 보장하는 주체가 없어 가격이 널뛰기한다고 혹평한다. 실제로 미국 통화 당국자들의 입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은 투기적 흐름을 보인다. 공급량이 한정적이고 거래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인다.

그러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에 민간의 디지털 화폐가 기존 금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국경을 넘어 사용하기 힘든 CBDC의 최대 약점인 특정국 통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CBDC는 중앙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았다는 강점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민간의 결제 시스템이나 카드와 차별성을 체감하기 힘들다. 상당 기간 민간 화폐와 CBDC 공존 가능성도 점쳐진다.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디지털 화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한 CBDC와 효율성의 민간 화폐가 시너지를 내면서 디지털 결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환율 조정 메커니즘 붕괴 우려

국적 개념이 없는 디지털 화폐를 마냥 반길 수도 없다. 특정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 환율에 따른 국가 간 상품 가격 조정 기능이 없어져 국제수지(수출-수입)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 현재는 특정 국가의 무역 적자(수출액〈수입액)가 지속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외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조정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이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킨다.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유혹에 빠져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를 통한 단일 통화 체제로 가면 경쟁력이 탄탄한 국가는 수출이 늘어도 환율 조정 기능이 없어 계속 흑자만 보게 되고 반대인 국가는 계속 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일이 유로화권으로 편입되면서 수출을 쉽게 늘리는 이익을 보고 있다. 2000년대에 독일은 높은 자체 기술력에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유럽의 생산 기지를 적절하게 활용해 경쟁력을 급격히 제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통화체제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조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흑자누적(상대적 수출 증가)을 향유했다. 여타 국가는 적자누적(상대적 수입 증가)으로 재정위기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00년 당시 독일 수출은 5435억달러(약 614조1550억원), 한국 수출은 1723억달러(약 194조6990억원)로 양국 간에 수출 규모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났음에도 2001~2008년에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았다(독일 12.8%, 한국 11.9%)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한 디지털 통화의 팽창은 기존 화폐보다 유통 속도가 더 빠르고 국경 제한이 없어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화폐의 효용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요즘처럼 재난지원금을 마음대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물가 상승 시 통화량 고삐를 죄는 것도 힘들 수 있다.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는 혁신의 발판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둠의 그림자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국과 빈국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조치

2009년 4월	상하이 등 5개 도시, 위안화 무역 결제 가능 시범 도시 선정
2010년 6월	위안화 무역 결제 시범 지역, 20개 성·시로 확대
2011년 1월	위안화로 외국인 직접투자 가능하도록 '경외 직접투자 위안화 정산 관리 방법' 발표
7월	중국 전역에서 위안화 무역 결제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10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위안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2014년 6월	개인이 진행한 상품 무역 혹은 서비스 무역에서 발생한 위안화 무역 결제 업무, 은행이 정산 처리
2020년 10월	베이징, 청두, 선전 등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
2021년 2월	중국계 금융기관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합작법인 설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사용 예정

CEO건강학 〈156〉

집콕 생활, 건강 위해 근육을 잡아라

이승훈 경희대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침구과 교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움직임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배달의 생활화, 넷플릭스의 일상화로 몸은 편하지만, 건강은 망가지고 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60세 이상은 약 30%, 80세 이상은 약 50%의 근육 손실을 보인다. 그러나 정상 범위를 넘어 근육의 양과 질이 감소한다면 '근감소증(sarcopenia)'을 의심할 수 있다. 노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신체 활동 감소나 영양·흡수 장애 등도 근육 감소의 원인이다.

근육 감소가 심해지면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기초대사량이 줄어 체중이 자주 변하고 살이 쉽게 찐다. 혈당 변동 폭이 커지고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커진다.

노년층은 근육량이 줄어들면 운동 능력이 떨어져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이 발생하기 쉽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음식)은 인슐린에 의해 글리코겐으로 합성되어 근육에 저장된다.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는 바로 꺼내 쓸 수 있지만, 용량 초과 시 중성지방으로 변해 복부 등에 쌓이게 된다. 우리가 뱃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는 지방을 에너지로 다시 꺼내 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게 되면



이승훈 경희대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침구과 교수
한의학 박사, 침구과 전문의,
현 대한한의학회 홍보이사,
현 대한침구의학회 홍보이사

자연스레 비만으로 이어져 근감소증 비만을 유발한다.

일반적인 비만은 식사량 조절과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지만, 근감소증 비만의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나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근육량을 줄이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감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세포 생성과 물질대사에 필요한 기초대사량의 감소도 줄인다. 일반 성인의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1kg당 0.8g이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노인은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므로 1kg당 1~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

인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된 부위가 허벅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하체 위주의 근력운동을 권장한다. 단, 운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는 무리한 근력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하체 근력운동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스쾃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강도 있는 특정 동작은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지만, 코로나19로 신체 활동 빈도나 운동량이 감소한 요즘은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춰서 시작한 다음,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만약 평소 스쾃을 해보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가장 편하거나 쉬운 동작을 찾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세트당 약 8~12회 정도의 운동을 권장한다. 만약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에 부담이 된다면 다리 근육에 힘은 주지만 근육의 길이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대표적인 등척성 운동에는 앉은 자세에서 양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고 떨어지지 않게 꾹 누르는 동작,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포갠 뒤 발을 땅에서 떼어 힘을 주어 버티는 동작이 있다.

등척성 운동

앉은 자세에서 다리 오므리기
의자나 쇼파에 앉은 자세에서 양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고 떨어지지 않게 안으로 꾹 누릅니다. 약 1~2분간 유지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 포개서 버티기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포갠 뒤 발을 땅에서 10㎝가량 뗍니다. 이때 위 다리는 아래로 아래 다리는 위로 힘을 주며 버팁니다. 약 10~20초간 반복하며, 다리를 바꿔서 시행합니다.



자료 : 이승훈 교수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13〉

정부 감독 대상이 된 평대경제(平台經濟)

허욱 고은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년 9월 1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방문해 개최한 좌담회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산업에 대해 ‘포용심신(包容審慎)’의 관리·감독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어적으로 포용심신은 ‘포용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한다’는 말이다.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 중국식 규제의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

2020년 12월 16일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반독점의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가 2021년 8대 중점 업무 가운데 하나로 지정됐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건 내부적으로는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해 거대해진 플랫폼 경제를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런 기조에 따라 2021년 2월 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가이드(關於平台經濟領域的反壟斷指南)’를 반포했다. 반독점 가이드 제3조 제1호는 기본원칙으로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규정했다. 플랫폼 경제 규제의 큰 방향이 ‘포용심신’에서 ‘공정 경쟁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로 바뀐 것이다.


허욱 고은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2021년 4월 10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2019년 중국 국내 판매액인 4557억1200만위안(약 82조원)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위안(약 3조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가 ‘이선일(二選一·둘 중 하나를 선택)’ 행위로 중국 내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배제·제한해 왔고, 제품·서비스와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해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플랫폼 내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 이유였다.

이선일 행위란 플랫폼이 플랫폼 내 경영자들에게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매장을 개설하거나 판촉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독점적 지위, 플랫폼 규칙, 데이터·알고리즘 등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플랫폼 내 경영자들에게 부당 행위를 강요했다.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 제17조 제4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거나 특정 경영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향해 날로 엄격해져 가는 중국의 반독점 견제 조치를 ‘플랫폼 경제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이나 ‘중국 중앙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 갈등’과 같은 대립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탄압이라기보다는 과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개방·포용의 잣대가 네트워크·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소비자 보호 등에 가치를 둔 공격적인 관리·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보는 편이 맞다.

즉 이러한 추세는 이제 더는 ‘변수’가 아닌 ‘상수’이고, 중국 비즈니스 환경은 ‘악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 법제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우리가 선택할 차례다.

平台經濟
[píngtái jīngjì]

평대경제는 플랫폼 경제다. 플랫폼 경제란 디지털 기술의 토대 위에서 데이터가 선도하고, 플랫폼이 지지하며, 온라인이 협조하는 경제 활동 단위가 구성하는 신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즉 디지털 플랫폼을 기초로 한 각종 경제 관계의 총칭이다.



로직반도체 시장 천하삼분지계

인텔·AMD·엔비디아 로직반도체 3강 체제 공고화

장지훈 가젯서울 미디어 대표

2000년대에는 PC,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에 의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찾아온 것처럼, 최근 찾아온 슈퍼사이클의 배경에도 데이터센터라는 키워드가 자리한다. 각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의 변화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핵심 부품의 모습도 함께 변화해 왔다. 이는 CPU, GPU 등으로 대변되는 로직반도체(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다.

PC가 반도체 시장 성장을 이끌던 2000년대, 로직반도체 시장의 핵심 부품은 CPU와 게임용 GPU였다. 이 중 CPU의 경우는 이미 시장에 확고한 승자가 정해져 있었다. 압도적 강자 인텔과 경쟁자 AMD의 2강 체제로 만들어진 CPU 시장 정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반면 GPU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었다. 부두 시리즈의 3DFX, 버지의 S3 그리고 매트록스와 같은 기업들이 경쟁했고, 결국 엔비디아와 ATI가 살아남았다. 이후 ATI는 AMD에 인수되는데, 그렇게 GPU 시장 역시 CPU 시장처럼 2강 체제로 정립되었다.



장지훈 가젯서울 미디어 대표
한국외국어대,
전 한화 갤러리아 상품총괄본부 기획팀

이어진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이들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잠시 멀어지는 듯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시대가 바뀌며 발생한 로직반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이유였다. 핵심 부품들이 따로 조립돼 완성되는 PC와 다르게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개의 반도체가 하나의 칩 안에 담긴 SOC 구조를 취한다. 이것을 모바일 AP라 하는데, 이 모바일 AP 시장 경쟁에서는 CPU, GPU와 같이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들이 강했던 분야를 넘어서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었다. 모바일 AP에서는 특히 통신 역량이 중요했다. 당시 그래픽카드만을 만들던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AMD나 인텔을 비롯한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이 통신 역량을 가졌을 리 만무했다. 때문에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고전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모바일 AP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시장의 헤게모니는 전통의 통신 기업 퀄컴이 쥐게 되었다.

슈퍼사이클 이끌 데이터센터
기성 로직반도체 강자 다시 주목
헤테로 컴퓨팅 시장 경쟁 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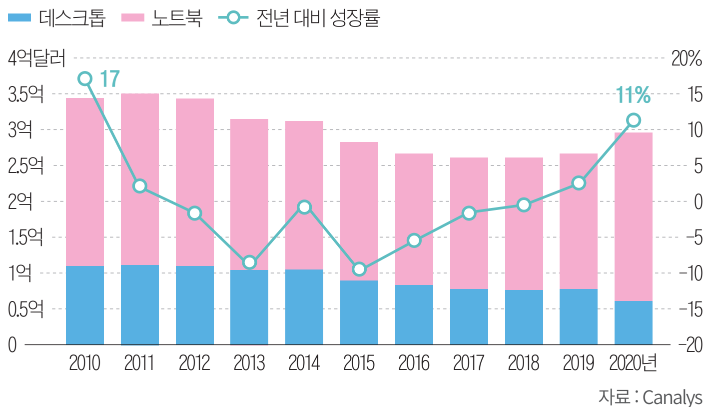
로직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로직반도체 시장 패권은 여전히 PC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마트폰 시대의 로직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다. 비록 기성 로직반도체 진영은 모두 모바일 AP 시장 패권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실질적인 로직반도체 시장 패권은 여전히 이들의 손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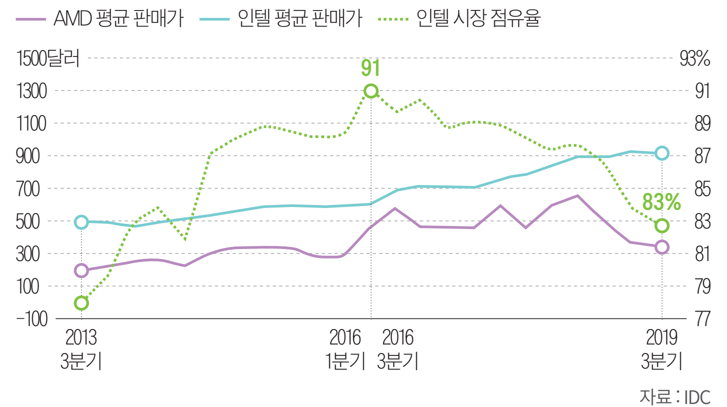
로직반도체 시장 패권 변화와 관련해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패러다임 전환을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다. 우리가 2010년대를 스마트폰 시대라 일컫는 이유는 그 시장의 성장세가 괄목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지 PC 시장이 붕괴해서가 아니다. 스마트폰 시

글로벌 PC 출하량



자료 : Canalys

인텔과 AMD의 CPU 시장 점유율



자료 : IDC

대가 만들어낸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스마트폰이 만들었다기보다는, PC라는 기성 시장이 연 3억 대 수준의 판매 규모를 유지하며 버텨준 토대 위에 새로운 시장이 개화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스마트폰의 경우는 연 15억 대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지만 모바일 AP 시장을 4~5개의 기업이 나눠 가지고, 평균 납품 가격은 70달러(약 7만9000원)가 채 되지 않는다. 반대로 PC 시장은 과점 구조로 CPU, GPU 시장 모두 두 개의 기업이 시장 과실을 나눠 가지며 평균 판매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AMD의 CPU 평균 판매가로만 따져도 모바일 AP의 평균 판매 가격의 4배는 족히 넘는다.

로직반도체 시장의 패권과 관련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다음 세대 반도체 시장을 이끌 단어가 데이터센터라는 점이다. 비록 스마트폰 시대에는 기성 로직반도체 진영이 퀄컴, 미디어텍과 같은 신진 진영에 패배해 모바일 AP 시장의 과실을 모두 내주었지만, 이 데이터센터 시장 싸움에서는 이러한 이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무엇보다 이 시장이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들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왔다는 점이 이변이 재현되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다.

데이터센터용 로직반도체로 대표적인 것이 메인 연산을 맡는 서버용 CPU인데 서버용 CPU 시장은 9할의 점유율을 가진 인텔이 오랜 시간 시장을 지배해오며 이들의 제품, 솔루션은 마치 표준처럼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인텔의 지배구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AMD나 엔비디아와 같은 기성 로직반도체 진영일 확률이 높다.

헤테로 컴퓨팅 시장 향하는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들

신규 진입자들에 의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 기업들이 쌓아 올린 진입 장벽을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버 시장과 같은 고성능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이 시장 정세를 바꿀 만한 제품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고 여기에 최근 데이터센터 시장은 과거처럼 CPU 혹은 GPU 단일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넘어 CPU와 GPU 조합으로 구성된 전체 솔루션의 성능, 효율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종 코어 조합 형태를 헤테로 컴퓨팅이라 하는데, CPU나 GPU 한 가지만 집중해도 가능할지 말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규 진영이 경쟁력 있는 헤테로 컴퓨팅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반면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헤테로 컴퓨팅 솔루션을 준비해왔다. AMD는 애초에 CPU와 GPU를 모두 만드는 진영이었고, 인텔은 3년 전 AMD의 그래픽 사업 부문을 이끌던 인물 라자 코두리를 영입해 GPU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에 무려 400억달러(약 45조2000억원)를 들여 ARM 인수 합의에 성공하며 CPU 역량을 보강했고, 올해는 더 나아가 데이터센터용 CPU인 그레이스를 출시했다.

헤테로 컴퓨팅 시장을 향하는 기성 로직반도체 기업들의 모습, 그리고 점점 삼자 구도로 굳어져 가는 로직반도체 시장의 형세가 눈에 들어온다. 모바일 시대의 끝, 이제 데이터센터가 이끄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금 이들의 이름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세 기업이 지배하는 로직반도체 시장. 2020년대는 이들이 다시 주인공의 자리에 오를 차례다.

COLUMN

로펌 인사이드

세금 미납으로 범죄자 될 수도 있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기업과 관련한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 소식이 보도될 때 단골손님처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조세포탈범죄'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무다. 그렇지만 일반 사인(私人) 간의 금전채무 관계와 달리 조세채무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세관청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조세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형사 범죄가 되기도 한다. 어떨 때 조세채무 불이행이 범죄로 연결되는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자.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학 학사, 미 조지타운대 조세법 석사, 사법연수원 29기, 사법시험 39회, 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지가 쟁점

단순히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는 것은 법률상 '조세탈루'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무 불이행은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어떠한 경우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 이에 관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여섯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 훑어보면 다른 경우는 비교적 구체적인 행위 유형인 반면, 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 등의 은폐'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바지 사장'의 사례다. 명의자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사업자만 놓고 보면 세금 포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든 실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든 마찬가지의 세금이 부과되고 또한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이 납부돼 왔다면 전체 세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의 '포탈'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명의 위장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무자격자를 명의자로 내세운다든가 아니면 실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될 경우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든가 또는 감면 특례가 배제되는 등 납부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덧붙여서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 허위 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이뤄진다면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두7667 판결).

그리고 이른바 '선박왕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사안에서 판례는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한 피고인이 해운 업계의 관행에 따라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단계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 등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도3411 판결).

그렇다면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관해서도 판례는 1회의 차명계좌 이용에 그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게 하거나 미리 자금 세탁된 헌 수표를 받아 일부를 다시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덧붙여져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8도667 판결).

차명계좌 사례는 아니지만 이른바 '완구왕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에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해 해외 법인의 수입을 기지회사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지회사를 통한 통상적인 투자 구조와 더불어 피고인이 기지회사 명의의 해외 계좌 인출서명권자로 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5년보다 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더

욱 엄격한 부당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법과 판례는 모든 조세채무 불이행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조세탈루와 조세포탈을 구분해서 달리 취급하지만, 납세자로서는 혹시나 조세탈루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로까지 문제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반 사인(私人) 간의 금전채무 관계와 달리 조세채무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세관청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형사 범죄가 되기도 한다.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문제도 있어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개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문제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매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사업자의 총매입액을 기준으로 한 매입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주면서, 이를 위해 각 생산 단계의 사업자가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 단계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사업자 상호 간에 매출액을 검증하고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측면에서도 투명한 세원(稅源) 관리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제10조 제1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서 서로 합의했다면 처벌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은 가공세금계산서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더욱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데 (제10조 제3항), 여기서 가공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도8069 판결).

최근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에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그와 같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는 조세범처벌법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18도17244 판결).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수수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의 포탈로 연결돼 처벌되기도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발생하려면 한 사업자가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전 단계의 사업자가 매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판례는 그와 같은 전반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두11618 판결 참조).

특가법 가중처벌 조항 각별히 주의해야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액 30억원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함께 처해진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 시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에서의 '합계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실무상 특가법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기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때는 징역형 자체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된다.

포탈 세액의 최소 2배에 달하는 벌금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결국 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요컨대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 요령은 필요하지만, 조세포탈로 연결되는 이중장부, 허위전표, 소득은닉 등의 행위는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돋보기

임대료 연체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10년 보장될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A씨는 대학가 앞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워낙 상가의 입지가 뛰어나다 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임차인들의 매출은 꾸준한 편이다. 1층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줬다. 그의 임대료는 9개월분이 연체된 상태였다. 물론 연체된 임대료를 계약갱신 이후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뒀다. 하지만, 계약갱신 후에도 기존 연체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료 연체가 3개월분 더 늘었다. 이런 와중에 임차인의 태도가 돌변했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기간은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계약 해지를 당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전 PWM프리빌리지서울센터장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있어
보증금 있어도 차임 거부 안 돼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안 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즉,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재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①임차인이 3기, 즉 3개월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⑤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재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부하고, 연체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없다.

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임대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부하고, 연체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없다.

임대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임차인과 차임 연체에 따른 분쟁일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A씨의 상황을 따져보려면, 임대차 계약갱신을 전후로 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살펴봐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계약갱신 후에도 3기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3기의 차임이 연체됐다. 총 연체된 차임은 12기에 달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갱신이 된 때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무관…신규 임차인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헷갈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는 유형의 대가다. 여기에 거래처를 비롯해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무형의 대가도 포함된다. 즉, 권리금은 영업상의 유·무형의 장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권리금에 관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법에서는 권리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최소한 보장해 줄 뿐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는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로 본다.

하지만,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보지 않는다.

참고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유익비(목적물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가 들어간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이 현존한 때만 임대인에게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참조). 이때 임차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다. 가령 임차인이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것은 임차인의 필요 때문에 행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1다8029 참조). 즉,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바이든 부양책, 낭비 우려되는 네 가지 이유



마이클 보스킨(Michael J. Boskin)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후버 연구소 선임 연구원, 전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

배경설명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31일(이하 현지시각) 2조2500억달러(약 2542조5000억원) 규모의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4월 28일엔 보육, 보편적 유치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이 포함된 1조8000억달러(약 2034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공개했다. 보육과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 이른바 '인적 인프라'를 다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자는 바이든의 부양책이 큰 낭비를 유발할 것을 우려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2500억달러(약 2542조5000억원) 인프라 투자 계획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3분의 1가량은 '인프라'라는 광범위한 개념의 정의에 포함되지도 못할 것이다. 이 계획(패키지)은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미 지출된 5조달러(약 5650조원)를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더 많은 지출에 대한 발표가 뒤따를 것이다.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는 서로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재정 지출을 각각 따로 논의하고 각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연방 정부의 지출이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지출은 민간 및 지방 정부 지출을 밀어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① 분도글(boondoggle·불필요한 지출)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지출과 규제를 추구하는 정치인은 대중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신경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수익이 줄어들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일련의 조치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이든 패키지는 (딱히 쓸데가 없는) 선심성 사업과 정실 자본주의적 친기업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곧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금융을 간절히 바라게 될 과거 민주당 정부의 ② 캘리포니아 고속철도(HSR)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인프라 건설 수요가 있기는 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는 141개국 중 133위로 (미국 좌파의 귀감이 되는 국가들인) 스웨덴과 덴마크를 앞섰다. 미국 토목공학협회는 미국 인프라에 C- 등급을 매겼고, 생산성 있는 장기 인프라 투자 기회는 아직 충분하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의 일부만이 정부의 적절한 의무이자,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연방 정부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바이든의 ③ 반(反)성장적인 법인세 인상은 연방 정부 인프라 지출의 자금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미국 기업에 경쟁자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 외에도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인상할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지출 비용을 15년간의 세금 인상으로 충당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1조9000억달러(약 2147조원) 규모의 지출 법안도 적자를 쌓이게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지출이 성장과 고용, 수입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논리는 정부의 차입금리가 낮고 지출 증가율이 생산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재정이 '공짜 점심'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바이든의 증세 동기에 의문을 품게 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세금 인상→경제 위축

정리하면, 바이든의 주장은 네 가지 이유에서 터무니없는 것이다. 첫째,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인프라 예산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 자극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인프라 계획 수립과 최종 승인에는 시간이 걸리고, 건설은 종종 예산 초과와 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 뉴딜정책도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하지 못했으며, 일본도 계속되는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다. 대부분 실업자에게는 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2조2500억달러(약 2542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

형 굴착기와 타워크레인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 없다.

둘째,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고속도로·교량·댐·항만 및 대규모 보수 사업)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이는 정부 부채 금리가 상승할 때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의회 예산처는 2051년이 되면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금리가 3배 높아지고,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6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에서 ④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추가 지출 없이도 잠재 생산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도입이 가속하면서 여행뿐 아니라 교육, 외식, 쇼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의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뜻한다.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바이든 패키지가 세금 인상을 초래하고 이것이 가져올 피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미 연방 정부 자금이 풍부할 때, 정치인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만든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로 인한 선심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지·보수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축 사업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신축 사업이 지역구에서 더 '그럴듯하고 예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 보조금이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의 80%를 부담한다고 할 때, 지방 정부는 '펫 프로젝트(pet project·특히 선호하는 사업)'를 추진하는 데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유권자에게 고속도로 건설의 20%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은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다른 주들의 펫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만약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안다면, 이 같은 재정적 교차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인이 정부 예산이 '공짜 돈'이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새겨놨을 때, 정부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현 상황은 측정할 수 없고, 무형적이며,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의 편익으로 '계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용-편익 분석을 뒤틀리게 하는 사업 제안서로 뒤덮여 있다. 쓸모없는 사업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프로젝트신디케이트

정리=김문관 기자, 정현진 인턴기자

Tip |

① 분도글(boondoggle)은 '보이스카우트가 목에 거는 가죽 장식 끈'을 뜻한다. 단어가 나온 1920년대에는 부정적 의미가 없었으나, 1935년 뉴욕타임스(NYT)에 최초로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당시 NYT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 사업을 보도하면서 "실업자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쓸데없는 예산이 쓰이고 있다. 그중에는 분도글을 만드는 공예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다. NYT가 이를 세금 낭비 사례로 지목한 이후, 분도글은 정부 낭비를 유발하는 대형 사업을 비판하는 말로 쓰인다.

② 캘리포니아 고속철도(HBR) 사업은 샌프란시스코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지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다. 애초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보조금으로 건설 비용이 충당되게 돼 있었지만, 6년 후 결국 초기 철도 건설 비용만 조달하는 데 그쳤다. 이 철도 프로젝트의 총 예상 비용이 1000억달러(약 113조원)로 초기 예상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고, 기술적·재정적 장애물 탓에 심각한 부실 경영에 시달렸다. HSR은 '고속' 철도 시스템에서 '혼합 운용' 철도 시스템으로 격하됐다.

③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④ 한국은행이 4월 25일 발표한 '해외 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2월 한파 영향 등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2000원)의 현금 지급, 경제 활동 재개, 원활한 백신 보급 등으로 지난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9.8%로 전월(-2.7%)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3월 들어 회복세가 빨라졌다. 3월 ISM(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는 64.7로 1983년 12월(6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지수도 63.7로 1997년 지표 편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신뢰지수도 1월 88.9, 2월 90.4, 3월 109.7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기조,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본 인재 경영의 중요성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최근 LG전자(이하 LG)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결정은 모토롤라, 노키아, 소니 등 한 시대를 주름잡던 기업들의 스마트폰 사업 실패에 더한 대기업 사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첨단 산업의 역동성과 글로벌 경쟁의 현상 이면에 담겨있는 LG 스마트폰 사업의 철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스마트폰 산업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이익의 승자독식 현상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스마트폰 산업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빼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다. 이 두 회사의 시장 매출 점유율은 50%를 조금 상회하지만, 이익 점유율은 90~105%를 오가고 있다. 특히 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 되는 애플의 이익 점유율은 70% 후반으로 이익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애플과 삼성의 이익 과점 현상은 이 두 회사가 프리미엄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시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 산업이 매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창의성 경제에 속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산업은 과거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는 대량생산의 원가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아니다. 쓰던 멀쩡한 기계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도록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혁신성과 디자인이 누적돼 프리미엄 브랜드가 돼야 돈을 버는 산업이다.

이제 과거처럼 설비와 자본의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LG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보여준다. 모토롤라, 노키아, 소니 그리고 잠시나마 스마트폰 사업의 꿈을 꿨던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그 어떤 기업도 설비와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바로 소비자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이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는 점이다.

미국 보스턴대학의 제임스 베센 교수는 2000년 이후로 모든 산업에서 일등 기업과 나머지 기업과의 생산성과 이익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슈퍼스타 경제화'라고 명명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이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현상이라는 의미다. 성과의 급격한 양극화는 일등 기업의 직원들이 월등한 처우를 받도록 한다. 이는 우수한 인력들을 일등 기업이 독점하게 하고 이것이 더 좋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고 베센 교수는 설명한다.

일례로 구글은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간 세기의 대결을 벌이도록 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이 비싼 캠페인으로 당시까지 AI의 일등으로 알려진 IBM의 왓슨보다 구글의 AI가 훨씬 앞선 기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광고할 수 있었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AI 자회사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천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갖춘 인재들은 이제 실리콘밸리는 물론 중국과 유럽 등 원하는 곳으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쉽사리 이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핵심 인재 중심의 경쟁력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창의성 경제 맞는 인사 관리 혁신 도모해야

한편,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점차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포기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이 공채 제도를 활용한 배경에는 시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내부 교육을 통한 인력 육성의 필요성과 고성장 시대에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결합한 제도로 이 문제를 극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노동 시장의 관행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을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에서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채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 모든 현상은 핵심 인재 중심의 창의성 경제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고, 슈퍼스타 경제의 변화가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LG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는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전략적 민첩성과 함께 핵심 인재가 경쟁력의 근본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사례다. 시대에 맞는 인사 관리의 혁신을 도모할 때라는 것이 이번 사례가 시사하는 바다.

CULTURE & ENTERTAINMENT

프로와 아마추어 다치는 부위도 달라 평소 운동하고 라운드 땐 힘 빼라 68

글쓰기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70

봄을 한가득 담은 와인, 로제 72

LH 사태로 돌아보는 세태…지도층 ‘청렴’이 해법 74

‘경영의 신’이 말하는 일의 진짜 가치 76

말을 시작하는 너. 아빠는 너의 말을 그림으로 남긴다 78

민학수의 골프 오디세이 〈43〉 **Interview** KLPGA 지정병원 솔병원 나영무 원장

프로와 아마추어 다치는 부위도 달라 평소 운동하고 라운드 땐 힘 빼라

주말 골퍼 팔꿈치 많이 다쳐
프로 골퍼 허리·손목 부상 많아
라운드 중 물·간식 챙겨야

"프로와 아마추어는 자주 다치는 부위도 다르다. 어릴 때부터 하루 8시간 안팎으로 훈련하는 프로는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워낙 몸을 많이 사용하는 데다 빠른 헤드 스피드를 내려 하기 때문에 부상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 주말 골퍼는 반대로 스윙의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평소 몸을 제대로 풀지 않고 치기 때문에 부상당하기 쉽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공식 지정병원인 솔병원의 나영무 원장은 프로 골퍼가 자주 다치는 부상 부위 세 곳은 허리와 손목, 어깨순이라고 했다. 주말 골퍼는 프로가 잘 다치지 않는 팔꿈치가 1순위 그리고 허리, 어깨순이라고 한다.

나 원장은 재활의학 및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축구대표팀 주치의를 경험했고, KLPGA 공식 지정병원 원장이다.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 '운동이 내 몸을 망친다' '마흔부터 시작하는 백세운동' '하루 6분 남자의 힘은 스트레칭에서 나온다' '의사들이 권하는 스트레칭' 등 부상 예방 및 몸만들기 관련 책도 여러 권 펴낸 베테랑이다.



나영무(오른쪽) 솔병원 원장은 재활의학 및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골프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 스포츠 선수의 치료를 도운 경험이 있다. 사진은 병원을 찾은 신지애 선수와 함께. 나영무

골프는 신체 접촉과 뛰는 양이 많은 축구나 농구처럼 격렬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스윙의 원리가 상체와 하체를 반대로 꼬면서 생기는 힘을 활용하기 때문에 허리와 골반에 무리를 주기 쉽고 공을 치는 순간 드라이버의 경우 약 1t의 충격이 생기기 때문에 손과 손목, 팔꿈치 등도 다치기 쉽다. 무엇보다 골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준비 운동 없이 라운드하다 다치는 이가 적지 않다.

즐겁고 몸에 도움 되는 골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힘 빼야 팔꿈치 안 다친다

왜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엘보'에 시달리는 주말 골퍼가 많은 걸까? 주말 골퍼보다 수천 배 공을 더 많이 치는 프로들은 상대적으로 팔꿈치 부상은 적은 편이다. 골프 스윙의 제1장 1절은 힘 빼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몸통 회전과 함께 가볍게 휘두르는 것이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거리와 방향성을 모두 잃게 된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 부상을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팔꿈치 바깥쪽 통증 원인 가운데 왼쪽 팔은 타이트한 그립과 과도한 코킹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오른팔은 다운스윙 중 손목 코킹이 일찍 풀려버리는 캐스팅(casting)과 팔이나 손목을 구부려 공을 퍼올리려는 스쿠핑(scooping) 동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모두 기본에서 벗어난 동작이다.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통증은 스윙 도중 볼을 맞히기 위해 클럽을 갑작스럽게 감속하거나 백스윙과 다운스윙 시 팔꿈치 각도가 틀어질 때 생기기 쉽다.

이런 팔꿈치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힘 빼고 클럽 무게를 활용하는 스윙의 기본을 제대로 익혀야 한다. 그리고 연습과 라운드 전에 팔을 충분히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허리

프로 골퍼의 부상 부위 1순위이자 주말 골퍼가 팔꿈치에 이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허리다. 스윙 때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평소의 8배나 된다. 어드레스 때 척추가 앞으로 굽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잘 익혀야 한다.

평소 운동량이 적은 주말 골퍼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이 굳어서 몸통 회전 때 근육이 쉽게 늘어나거나 긴장으로 인한 통증이 오기 쉽다. 척추 근육이 약해 척추가 흔들리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잦다. 허리를 잘 돌려야 공을 잘 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과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어깨, 손목, 발목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한다.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중요한 조직으로, 골프 스윙을 하다 다치기 쉬운 부분이다. 이 힘줄이 계속 충격받으면서 파열될 수 있다. 처음엔 근육통으로 오인해 방치하다 파열 범위가 넓어지면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진다.

어깨가 말랑말랑해야 백스윙과 폴로스루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그리고 날개뼈(견갑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등이 굽어 어깨도 같이 앞으로 굽는 체형의 골퍼 중 날개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어깨 근육의 유연성 및 근력 강화에 주의하면 어깨 가동 범위가 넓어져 비거리 향상에 도움 된다.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발목을 자주 삐는 이들은 평소 가벼운 아령으로 손목 운동을 하고 한 발로 서는 동작 등을 통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라운드 중 좋은 습관

골프는 머리를 많이 쓰는 운동이다. 배고프기 전에 조금씩 먹어야 한다. 프로 골퍼들이 라운드 도중 수시로 바나나 등 준비해온 음식을 먹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머리를 쓸 때와 근육이 수축할 땐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허기를 느끼면 정신력과 근수축력이 함께 떨어진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먹어야 한다. 물도 조금씩 여러 번 마시면 좋다. 땀을 흘린 뒤 체중이 평균치에서 2~3% 빠지면 운동 능력은 10% 줄어든다고 한다.

식사 후 라운드는 1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준비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쌀쌀한 날씨에 근육이 굳어 있을 때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찢어질 수 있다. 체조를 먼저하고 손이나 고무공 등으로 근육을 가볍게 풀어 주고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 라운드 중에도 퍼터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문지르면서 풀어 주면 좋다.

골반을 잘 돌리려면

팔 교차하여 골반 회전 운동

15~20회씩 2세트 →

15~20회씩 2세트 →

운동 목적 골반과 요추의 기동성 향상
운동 방법 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후 양팔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준비한다.
② 몸통과 다리는 고정하고 골반만 움직인다.
포인트 자세를 유지하며 양방향으로 회전한다.

이상근(고관절의 중요한 고정근이며 외회전 담당 근육) 스트레칭

옆모습

앞모습

발목 걸침 3회씩 2세트 →

운동 목적 이상근의 기동성 향상
운동 방법 ① 매트에 누워서 한쪽 발목 혹은 슬와근(오금근)을 반대쪽 다리 무릎에 걸친 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칭한다.
②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실시한다.
포인트 스트레칭 정점에서 20~30초간 유지한다.

자료 : 솔병원



민학수
조선일보
스포츠전문기자

박혜진의 엔딩노트 〈35〉

글쓰기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페터 한트케의 소설 ‘소망 없는 불행’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머니에 대해 쓴다. ‘나’의 어머니는 7주 전 자살했다. 신문을 통해 보도된 어머니의 죽음은 다음과 같이 간결한 문장들로 정리된다. ‘토요일 밤 A면(G읍)의 51세 가정주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주인공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쓰고자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머니의 자살 사건을 대하는 낯선 인터뷰 기자보다는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믿기 때문에. 둘째, 무언가 할 일이 있으면 기운을 얻을 것 같아서. 셋째, 이 사건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살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현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듯 선명한 이유들은 불가해한 한 가지 이유로 수렴될 수도 있다. 완전히 말문이 막혀 버렸던 짧은 순간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 욕망은 오랜 시간 그를 쓰게 만드는 동기이기도 했다. 그에겐 충격적인 순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러한 욕구는 언제나 글쓰기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욕망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소설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글쓰기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가 무엇에 근거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소설은 어머니의 삶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절의 어머니부터 기억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머니까지. 말하자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부터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의 어머니까지. ‘나’는 어

충격적인 순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러한 욕구는 언제나 글쓰기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욕망이다.

머니의 삶을 추적하고 요약한다. 어머니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살핀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그녀는 존재했고 성장해 갔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우리가 아는 많은 여성의 삶과 특별히 다를 것도, 특별히 같을 것도 없어 보인다.

많은 것을 소망했으나 그 무엇도 이루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을 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작가로서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쓰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다. 어머니의 죽음이 있고, '나'는 그것을 쓴다. 그러나 쓰면 쓸수록 어머니의 진짜 삶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기억은 선택되는 것이고 '나'는 어머니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쓴다고 해서 자신의 삶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도 아닐 테지만. 아무튼 멀어지는 상황에서 작가가 선택하는 것은 적합하고도 특정한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다시 형식에 맞추어 이야기를 고른다. 현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른 현실, 즉 허구적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 탄생하는 과정 아닐까. 사실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허구의 지점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

그 경로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자. 소설이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것은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죽음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쓰는 행위를 통해 소설을 쓴다는 것에 포함된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어 간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상의 쾌감이다. 공포로 가득한 사건을 외면하고 있던 가운데 지나간 사건을 서술한다는 것은, 즉 소설을 쓴다는 것은, 공포의 덩어리에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와중에 발생하는 회상의 쾌감을 인식하는 것이다.

"서술한다는 것이 단순한 회상의 과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은 다음을 위해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 즉 가능한 한 적합한 문장들로 기억에 접근해 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공포의 상태에서 작은 쾌감을 얻어내고, 공포의 쾌감에서 회상의 쾌감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하며 시작한 소설은 소설 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마무리된다.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게 쓰게 될 것이라는 말에는 지금 이 내용이 충분히 자세한 글이 아니라는 말을 포함하는 동시에 회상이 거듭될수록 자세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류사에 남은 많은 작품이 작가가 경험한 가슴 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것을 쓰려고 한다. 가슴 아팠던 일을 떠올려 가며 가까스로 지나온 슬픈 일을 굳이 왜 마주하려는 걸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공포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자세히 쓰게 되는 일에 동반되는 회상은 인간을 비로소 인간으로 만드는 성찰적 행위다. 일기를 쓸 때 인간은 지난 하루를 회상하며 불분명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하루를 분절하고 세분화한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일기를, 아니 그 무엇이라도 쓰며 그때 그 사진을 복기하는 이유는, 그 시점을 돌아보는 것이 다만 공포의 행위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말문이 막혀버리는 짧은 순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쓸 수 있는 용기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회상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소망 없는 불행'은 그 제목이나 소제의 비극성과 달리 인간의 가능성과 소설이라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은 절망을 두려워하면서도 '새로운 절망'을 기다리는 모순되고 용기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Plus Point

페터 한트케(Peter Handke)

1942년 오스트리아 케른텐주 그리펜에서 태어났다. 두 살도 못 돼 베를린으로 이사하는 등 성년이 되기까지 국경을 넘어 여러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첫 소설 '말벌들'을 출간하면서 '47그룹' 회합에 참석하였고 논문 '문학은 낭만적이다', 희곡 '관객모독'을 통해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1967년 '게르하르트 하웁트만 상'을 받았고 희곡 '카스파', 시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 소설 '긴 이별에 대한 짧은 편지', 방송극 등 장르를 넘나드는 왕성한 창작력을 선보였다. 1973년 '실러 상' '뷔히너 상'을 받았으며 1987년에는 빔 벤더스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 '베를린 천사의 시'를 썼다. 2019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박혜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젊은평론가상

원스 어폰 어 와인 〈15〉 로제 와인

봄을 한가득 담은 와인, 로제…꽃향기와 과일 향 물씬

봄과 어울리는 와인으로 로제만 한 것이 또 있을까? 향긋한 꽃과 신선한 베리를 하나 가득 담은 듯 로제 와인 한 잔에서는 꽃향기와 과일 향이 화사하게 피어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로제 와인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생산량과 소비량이 꾸준히 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 중후한 레드 와인에 비해 로제가 가벼운 타입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로제 와인도 역사와 전통의 깊이가 레드 와인 못지않다. 음식과의 매칭 면에서는 레드 와인보다 자유롭고, 맛도 드라이한 것부터 달콤한 것까지 산지별로 다채롭다. 그렇다면 내 입맛엔 어떤 로제가 잘 맞을까? 로제 와인의 다양한 스타일을 알아보자.


강변에서 즐기는 로제 와인. 김상미

우아함과 전통의 상징, 프랑스 로제

전 세계에서 로제 와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미식으로 유명한 이 나라가 로제를 반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고 음식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다. 프랑스 로제는 대체로 단맛 없이 드라이한 스타일인데 프로방스산이 가장 대표적이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프로방스 지방은 로제 와인의 최대 산지이자 우아한 로제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로제는 레드 와인보다 열등한 포도로 만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프로방스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 이 지역 와인 총생산량의 3분의 2가 로제 와인이고, 가장 좋은 포도로 로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프로방스 로제는 색이 연한 것이 특징이다. 옅은 오렌지색에 분홍이 살짝 섞인 듯 빛깔이 연어 색에 가깝다. 맛은 가볍고 상큼하며 단맛이 없고 과일 향과 꽃향기의 조화가 우아하기 그지없다. 그중에서도 도멘 오트(Domaine Ott)의 방돌(Bandol) 로제는 '프로방스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맛뿐만 아니라 병 모양도 고급스럽다. 병 모양은 야자수를 본떴고, 바닥과 병목의 둥근 테두리들은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형상화했다. 1926년에 디자인된 병이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세련된 모양새다.

> 가볍고 스타일도 다양해
> 완연한 봄에 즐기기 딱 맞아
> 식탁 화사하게 물들여줄 맛

도멘 오트의 방돌 로제가 클래식하다면 모던한 프로방스 로제로는 위스퍼링 에인절(Whispering Angel)을 꼽을 수 있다. 로제 와인의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한 이 와인은 작년에 미국의 대형 주류 판매 사이트인 미니바 딜리버리에서 와인 부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뜻한 맛과 향으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한 모금 머금으면 매끄러운 질감과 함께 딸기, 체리, 복숭아, 오렌

지 등 상큼한 과일 향이 마치 천사의 속삭임처럼 입안을 부드럽게 채운다.

프로방스에서 서쪽으로 2시간 남짓 차를 달리면 타벨(Tavel)이라는 작은 마을에 닿는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로제 와인만 생산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그 시작은 1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타벨을 지날 때였다. 왕을 보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 왕에게 와인 한 잔을 바쳤다. 루비 빛이 영롱하고 과일 향이 풍부한 와인이었다. 필리프 4세는 와인을 받아 들더니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잔을 모두 비우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타벨 로제와 프로방스 로제는 둘 다 프랑스산이지만 사뭇 다른 개성을 자랑한다. 프로방스 로제가 우아하다면 타벨 로제는 강건하다. 연한 레드 와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타벨 로제는 색이 강렬하고 과일 향도 진하다. 탄탄한 보디감에서는 타닌도 느껴진다. 그래서 타벨 로제는 해산물이나 채소보다 육류와 더 잘 어울린다. 필리프 4세 이후에도 교황들을 비롯해 루이 14세와 헤밍웨이 등 타벨 로제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와인을 "왕을 위한 로제, 로제 와인 중의 왕(Rose for Kings, King of Roses)"이라고 부른다.

추천 와인



도멘 오트, 방돌 로제



샤토 데스클랑, 위스퍼링 에인절



이 기갈, 타벨 로제



발레벨보, 브라케토 다퀴



카모미, 벤드 화이트 진판델

감미로운 사랑의 맛, 브라케토 다퀴와 화이트 진판델

드라이한 프랑스 로제와 달리 이탈리아의 브라케토 다퀴(Brachetto d'Acqui)는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북서부 아퀴라는 마을에서 브라케토라는 포도로 만든 이 와인은 사랑의 전설을 담고 있다.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클레오파트라. 그녀가 어찌나 브라케토 다퀴를 좋아했는지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향할 때마다 배에 한가득 이 와인을 싣고 갔다고 한다. 선홍색이 매혹적이고 향긋한 장미 향이 코를 유혹하며 딸기와 라즈베리의 달콤함이 입안을 가득 채우니 사랑을 속삭이며 나누기에 이보다 더 좋은 와인은 없었을 것이다.

브라케토 다퀴는 알코올 도수가 5.5% 정도로 약하고 단맛이 강해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부담 없이 마시기 좋은 스타일이다. 과일 케이크 같은 디저트와도 잘 어울리지만, 주말 브런치에 차게 식힌 브라케토 다퀴 한 잔을 곁들이면 농익은 베리 향이 온몸 가득 봄을 채워주는 느낌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로제 와인 화이트 진판델(White Zinfandel)도 달콤함이 매력적이다. 매년 미국에서 수확하는 진판델 포도의 85%가 화이트 진판델에 사용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와인은 실수에서 탄생했다. 1972년 캘리포니아주의 한 와이너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들은 진판델을 으깬 포도즙이 발효되기 전에 즙의 일부를 빼냈다. 남은 즙은 포도 껍질과 함께 발효해 진한 레드 와인으로 만들고, 빼낸 즙으로는 핑크빛이 은은한 드라이 로제 와인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로제 와인의 발효가 도중에 멈추고 말았다. 발효가 완료되지 않아 알코올 도수는 10%가 채 되지 않았고 포도즙의 남은 당분 때문에 와인에서는 단맛이 났다. 와인을 버리기가 아쉬웠던 와이너리는 'Oeil de Perdrix(앵무새의 눈)'라는 프랑스 이름과 함께 화이트 진판델이라는 영문 설명을 덧붙여 와인을 출시했다. 그런데 이 와인이 뜻밖에 대성공을 거뒀고, 미국인은 발음하기 힘든 프랑스 이름 대신 이 와인을 화이트 진판델로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인의 피크닉 와인으로도 유명한 화이트 진판델은 그야말로 다목적 와인이다. 보디감이 가볍고 과일 향이 은은해 채소, 해산물, 육류 등 어떤 음식과도 부딪히지 않는다. 초밥이나 샌드위치 등 가벼운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매콤한 음식과 즐기면 특유의 단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준다. 아직은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 주말 식사에 로제 와인 한 병 곁들여 보면 어떨까?



김상미
와인 칼럼니스트

홍광훈의 산인만필(散人漫筆) 〈1〉

LH 사태로 돌아보는 세태…지도층 '청렴'이 해법

한 중년 남자가 칼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한다. 아내가 울면서 옷자락을 붙잡는다. 그러나 더 이상 방도가 없다. 이미 쌀은 떨어졌고 입을 옷도 없다. 아내는 "죽만 먹어도 좋으니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말자"고 애원하지만 죽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절박한 처지다. 애들도 배고파 울고 있다.

이는 '동문행(東門行)'이라는 2000년 전 중국의 악부시(樂府詩)에 묘사된 장면이다.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 경우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공분을 산다. '열자(列子)'의 '제인확금(齊人攫金)' 우화가 그 예다. 금을 보는 순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새가 먹이 때문에 목숨을 잃듯이 재물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人爲財死, 鳥爲食亡)' 일이 곧잘 벌어진다. 이런 세태를 사마천(司馬遷)은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 사람 왁자지껄 모두 이득 때문에 몰려오고, 세상 사람 시끌벅적 모두 이득 때문에 몰려간다(天下熙熙, 皆爲利來. 天下攘攘, 皆爲利往)." 오늘날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방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현상을 보면 더욱 실감 나는 격언이다.

성인인들 재물 좋아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공자(孔子)는 "부유함이 구해서 얻어진다면 채찍 잡는 마부라도 하겠다"고 했다. 나라 다스림에서도 우선 풍족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정도(正道)를 강조했다. 예컨대 "이득에 따라 행하면 원망이 많다"라거나,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득에 밝다"라거나,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대목들이 그러하다. 그리하여 "부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누리지 않는다"는 소신으로 "불의로 얻는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 말들은 "군자는 재물을 좋아하되, 취함에 정도가 있다(君子愛財, 取之有道)"로 요약된다.

물론 공자 말고도 정도를 지키면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그들이 반대 부류의 인간들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비행을 저지른 자들은 행복을 누리고 그들은 고초를 겪는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도척(盜跖)은 부와 장수를 누렸지만 정도를 걸어간 백이(伯夷)는 굶어 죽었다는 고사가 이러한 세태를 상징하고 있다. 이에 사마천은 "이른바 천도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所謂天道, 是耶非耶?)"하고 탄식했다. 몇 년 전 공전(空前)의 시청률로 일본 열도를 열광케 했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半沢直樹)'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정의는 가끔은 이긴다(正義はたまには勝つ)." 부조리한 세태에 대한 조롱이다.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세상 이치를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다들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모든 불로소득을 더러운 돈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이 취할 이득을 사악하고 교활한 수단으로 가로챈다면 더러운 돈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우위에 있는 부류들까지 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몇 년 전 한 교수



LH 임직원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 아파트. LH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을 활용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마천은 "세상 사람 왁자지껄 모두 이득 때문에 몰려오고, 세상 사람 시끌벅적 모두 이득 때문에 몰려간다(天下熙熙, 皆爲利來. 天下攘攘, 皆爲利往)"고 했다. 오늘날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방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현상을 보면 더욱 실감 나는 격언이다.

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자동 파면되었다. 40대 초반의 전도양양한 인재였다. 또 한 교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연구비까지 받고 고전을 번역하다가 한 편씩 잘라내 논문으로 위장, 학술지에 게재하여 교내 연구비까지 받았다. 무려 20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결국 다른 교수의 제보로 그 비행은 중도에서 그쳤다. 아직 30회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탐욕의 대가는 왕왕 패가(敗家) 아니면 망신(亡身)이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최근 LH 사태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공무상 정보의 악용은 물론이고 남이 얻을 이익을 교활하게 가로챈 파렴치한 범행이다.

관료사회뿐 아니라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더러운 돈을 탐하여 왔다. 대중은 분노를 넘어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위의 들보가 바르지 않으면 아래의 들보도 비뚤어진다(上梁不正下梁歪)'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때가 되었지만 아직도 새롭다. 노나라의 실권자 계강자가 나라에 도둑이 많은 것을 걱정하자 공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탐욕스러운 짓을 안 한다면 대중들도 본을 보고 상을 줘도 훔치지 않을 것이오." 지금 우리의 실상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1980년대 초 어느 인기 드라마에서 비롯되어 한동안 유행한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모두가 도둑놈)'란 말이 다시 회자될 판이다. "사자 몸속의 벌레는 사자의 살을 먹고(獅子身中蟲, 自食獅子肉)", 마침내 사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불경의 경구(警句)처럼 나라를 망칠 자들이다.

'조선구마사' 사태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경제 활동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일은 문제 삼을 바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거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더러운 돈을 탐한다면 매판(買辦)의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작금의 절망적인 세태에서도 희망은 있다. 그동안의 여러 정황에서 보듯이 인터넷과 SNS의 비약적인 발달로 우리 사회는 갈수록 투명화해 가고 있다. 때문에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세상은 안 될지라도, 불의로 이득을 취한 자들이 결코 그 즐거움을 오래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못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절로 멸망하게 된다(多行不義必自斃)'는 세상 이치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날이 온다. 바르게 산 사람은 비록 선한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평소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으므로 한밤중에 귀신이 문을 두드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平生不作虧心事, 半夜不怕鬼敲門)' 된다. 그러다 보면 억지로라도 청렴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 희망적인 상황은 특히 공정과 평등을 갈망하는 지금의 20~30대가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할 향후 10년 전후면 전개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적지 않은 부류는 구태에 오염되어 타락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선진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 성장 못지않게 국가 청렴도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같이 변화해가는 시대에 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홍광훈
문화평론가,
국립대만대학 중문학 박사,
전 서울신문 기자,
전 서울여대 교수

‘경영의 신’이 말하는 일의 진짜 가치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그룹 창업자.
조선일보 DB

김문관 기자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 김윤경 옮김 | 다산북스
1만6000원 | 268쪽 | 4월 12일 발행

부도 직전인 중소기업에 간신히 취업해 패잔병처럼 살던 한 젊은이가 첨단 전자 부품 제조회사를 세워 연 매출 16조원인 세계 100대 기업 총수에 오른다. 살아 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稲盛和夫·90) 일본 교세라그룹 창업자 얘기다. 이 책은 그가 60여 년 동안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온 일과 삶에 대한 절절한 고민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사투리가 들킬까 봐 사무실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마저 두려워했던 별 볼 일 없던 청년 가즈오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잠재력을 폭발시켜 일의 주인으로 거듭난 걸까? 그는 이 책에서 현재가 갑갑하고 미래가 막막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당신은 무엇이 되길 바라는가?”

저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취감도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1만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9999명은 불행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일까? 저자는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곤란하다”라고 강조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이 밖에도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하라 △사소한 것일수록 더 신중하라 △일을 하려면 손이 베일 만큼 완벽히 하라 △섬세한 감각을 연마하라 등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지혜가 담겼다. 이 책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발행된 후 꾸준히 새 번역서가 나오는 베스트셀러다. 신간에는 도입부에 흑백 사진을 더한 주요 문구가 삽입돼 감성을 자극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서평에 “‘일하는 것이 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잃어버린 삶의 이정표를 찾아줄 것”이라고 썼다.

잃어버린 삶의 이정표를 찾아주는 책

가즈오 창업자는 1932년 일본 가고시마에서 태어나 가고시마대 공학부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 간신히 교토의 오래된 제조회사에 취직했다. 제날짜에 월급 받기도 힘겨울 정도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곳에서 파인세라믹스 재료 개발에 참여했다. 그 일은 연구 경력이나 실력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매달렸고, 결국 성과를 냈다. 스물일곱 살 되던 1959년 교토세라믹(현 교세라 그룹)을 설립해 6만9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984년에는 일본전신전화공사(NTT)의 독점에 대항해 질 좋고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니덴덴(현 KDDI)을 설립해 거대 통신 기업으로 키워냈다. 2010년에는 80세를 눈앞에 두고 파산 위기에 처한 일본항공(JAL)의 재건을 위해 회장으로 취임해 1년 만에 흑자 전환, 2년 8개월 만에 다시 주식을 상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항공 회사로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학으로 풀어낸 일상

수학이 만만해지는 책

스테판 바위스만 | 강희진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1만6000원 | 288쪽 | 4월 16일 발행



넷플릭스부터 구글까지 최신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주변 일상 사례들을 소환해 그 안에 깃든 수학 원리를 쉽게 소개한다. 저자는 “수학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으며 어디에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하면, 복잡한 공식 없이도 수학의 개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전한다. 저자는 수학 박사다.

장기 투자 방법

돈의 물결

박제연 | 베가북스
1만6500원 | 264쪽 | 3월 15일 발행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조회 수 2000만 건을 기록한 투자 유튜버의 투자 기법을 담은 책.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 언제 올라타야 하느냐다. 핵심은 주식의 숨겨진 패턴을 읽는 데 있다. 저자는 “단편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게 돕는 책”이라고 자평한다. 저자는 현 투자자문사 JYP의 대표다.

공포에 포획된

고통 없는 사회

한병철 | 이재영 옮김 | 김영사
1만2800원 | 112쪽 | 4월 15일 발행



철학자인 저자는 “고통을 밀어낼수록 고통에 더 예민해지고, 죽음을 몰아내려 할수록 좋은 삶에 관한 감각을 상실하는 역설의 시대”라고 현세대를 분석한다. 이 책은 생존이 절대화한 사회, 공포에 포획돼 만성 마취에 빠진 우리 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담은 산문집이다. 저자는 독일 베를린예술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건강한 한 끼

1일 1채소, 오늘의 수프

아리가 카오루 | 이소담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
1만2800원 | 128쪽 | 4월 26일 발행



이른바 ‘집밥’의 시대다.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외식보다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일본 수프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엄선한 건강한 수프 레시피가 담긴 책이다. 한 레시피에 들어가는 식자재는 대부분 세 가지를 넘지 않는다.

삶을 바꾸는

걷는 생각들

오원 | 생각정거장
1만3000원 | 232쪽 | 3월 12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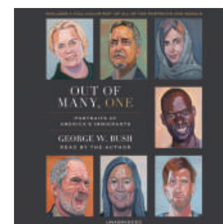


걸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예술가이며 시인인 저자는 삶을 돌아보고 싶을 때 찾아간다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매일 일상을 걸어보기로 했다. 출근 전 1시간을 과감하게 할애해 아침 산책에 나선 것. 그러자 늘 걷던 도시와 자연의 풍경이 바뀌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며, 삶의 흐름이 달라졌다.

전 미국 대통령이 그린 이민자들

많은 것 중, 하나(Out of Many, One)

조지 W. 부시 | 크라운
22.8달러 | 208쪽 | 4월 20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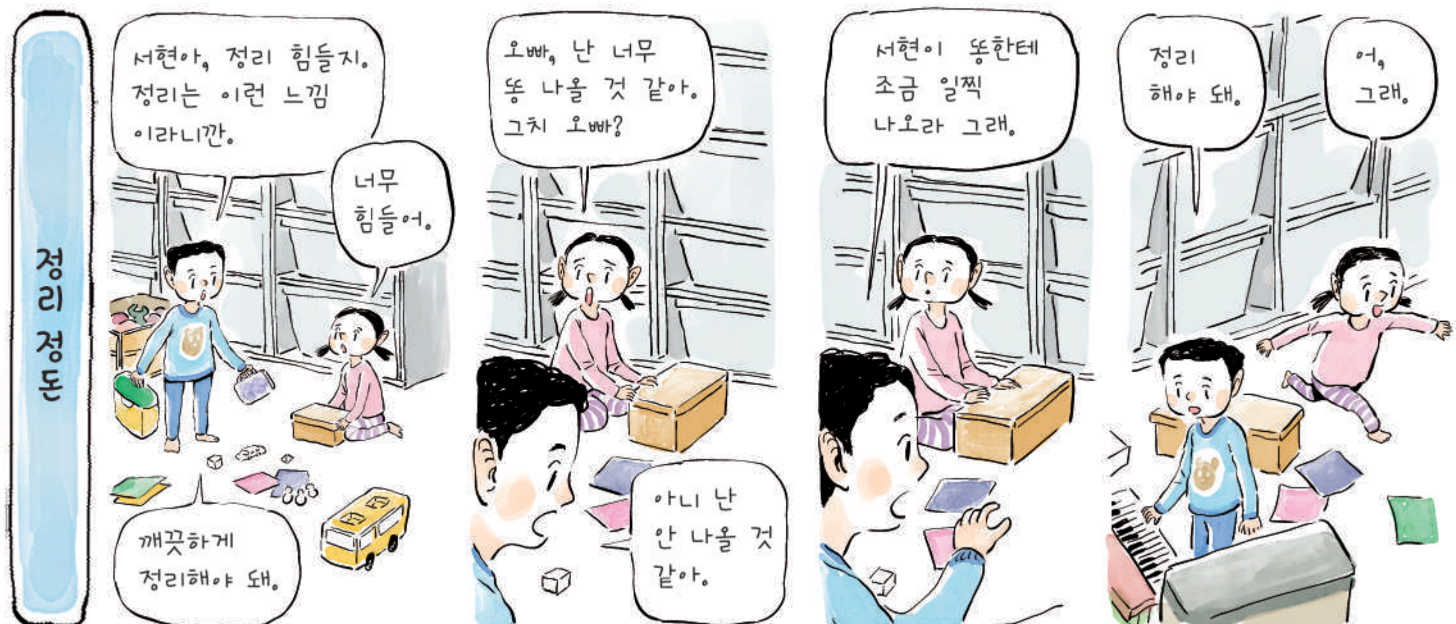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한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직접 그린 미국 이민자들의 초상화를 담은 책. 미국에 이민 온 남녀 43명이 그 대상이다. 초상화와 함께 그들 각각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인권을 위해 싸우는 탈북자, 나이지리아 소녀에서 NASA(미 항공우주국) 엔지니어로 성공한 이민자 등이 주인공이다.

아빠와 너

〈69〉 말을 시작하는 너. 아빠는 너의 말을 그림으로 남긴다.



글 · 그림 **마말마** th2000th@naver.com



ChosunMedia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조선일보 연중 기획 아이가 행복입니다

온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준 아기의 탄생을 알려주세요



▲부모 이름과 나이 ▲신생아 이름(태명도 가능), ○남 ○녀 중 ○째 ▲체중, 출생일, 출산 병원 ▲부모나 지인의 축하 메시지 ▲아기와 부모가 찍은 사진 ▲연락처(확인용으로만 씀)를 담아 이메일(birth@chosun.com)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실리는 가족에게는 ①축하 케이크 구매권 ②해피랜드 유아복 상품 교환권 ③출산 소식을 생일 날짜 본지 1면에 담은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EDITOR'S LETTER

방역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가 리더십

인도 뉴델리의 한 화장터. 줄 맞춰 쌓아놓은 장작이 불타는 곳 옆에 한 남성이 멍하니 서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전한 인도 수도의 모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쓰나미가 닥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 4월 27일 하루에만 코로나19 희생자가 3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6만여 명으로 작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내지 못한 '기록'입니다.

같은 날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2명, 사망자는 '제로'였습니다. 14억 인구 대국인 두 나라의 방역 실태는 천양지차입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민주주의 인도가 사회주의 중국에 패했다는 관전평도 나옵니다. 과연 체제 탓일까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미국은 같은 날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실패국으로 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산국 오명을 얻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인구의 4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정치 배제 방역'에 주력했고, 이 방식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올 1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조급함과 여당의 3, 4월 지방 선거 유세가 2차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의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디 총리의 오른팔인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4월 첫 18일 중 12일 동안 선거유세에 참여했습니다. 4월 중순 지지 세력인 힌두교 축제를 장려해 100만~300만 명이 몰리게 한 것도 팬데믹을 부추겼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이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0%에 못 미칩니다.

인도 정부는 '모디를 제거해서 인도를 구하자'는 야당의 구호가 트윗되자 트위터에 요청해 이를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른 건 정치체제의 차이가 아니라 방역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공원까지 화장터로 변한 곳에서 망연자실 서 있는 남성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조깅하는 남성의 모습은 국가 리더십이 국민의 운명을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에디터 오광진

READER'S LETTER

미국과 중국 중 택해야 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중국과 미국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 모양새다. '이코노미조선'은 국가 간 경제 전쟁이 무역·기술 전쟁을 넘어 공급망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한국도 어느 순간 미국·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박민우 직장인

넥스트 차이나는

'이코노미조선'을 보고 글로벌 공급망이란 말을 처음 알게 됐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백신 수출 금지도 모두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 흥미로웠다. 코로나19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어떤 나라가 넥스트 차이나가 될지 진단하는 내용도 재밌었다.

유하은 직장인

흥미로운 반찬가게의 변신

반찬가게는 대부분 영세한 곳으로 알았는데 슈퍼메이커즈 기사를 보고 그런 고정관념을 지울 수 있었다.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식당처럼 반찬이 공급되는 방식이 흥미롭고 믿음이 갔다. 데이터를 활용해 폐기율도 낮춰 더욱더 신선한 반찬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끌렸다. 보다 많은 매장이 생겨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선우진 건축사

독자 칼럼·의견 받습니다

<이코노미조선>은 독자들의 제보와 의견, 칼럼을 받아 지면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나 의견, 칼럼이 있으면 ec@chosunbiz.com으로 보내주십시오.

TAILIM
www.tailim.com

태림을 사용하면
큰숲을 살립니다

No.1 친환경 토탈패키징 기업

재생종이로 만드는 골판지 박스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 일하는 기업, 태림을 사용하면 큰 숲을 살립니다.



GLOBAL SAE-A

SAE-A TRADING | SAE-A EINS | SAE-A SPINNING | SAE-A stx ENTECH
WIN TEXTILE | IN THE F | S&A | TAILIM PAPER | TAILIM PACKAGING



Live beyond expectations.

SIGNIEL

SIGNIEL SEOUL

LOTTE WORLD TOWER 76F-101F, 300 OLYMPIC-RO, SONGPA-GU, SEOUL, KOREA 05551

T +82.2.3213.1000 F +82.2.3213.1330 www.signielhotels.com